

21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6912.95 (+60.37)		801.94 (-38.95)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3.854 (+0.043)		1386.70 (+0.20)



한성숙·김민석·강훈식 '함께'
한성숙(왼쪽부터)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관련기사 6면> /뉴시스

연속인상 vs 숨 고르기 한은, 기준금리 '딜레마'

금통위, 오는 27일 결정
성장-인상, 환율-동결 기조 엇갈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연2.75%에서 더 올릴 지를 결정한다. 지난 7월 전원일치 인상된 신현송 총재가 제시한 점검표를 보면 성장·수출과 가계부채는 추가 인상을, 환율은 속도조절을 가라키고 물가는 겉과 속이 엇갈려, 핵심은 인상 기조의 지속 여부보다 두 달 연속 올릴지에 모인다.

◆ 성장·가계빚, 예상보다 더 뜨거웠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성장, 물가, 금융안정의 세 갈래를 제시했다. 이를 성장·수출, 물가, 가계부채·주택, 환율의 네 지표군으로 나눠 보면 가장 선명한 신호는 성장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늘어 한은의 5월 예상치 0.2%를 0.4%포인트(p) 웃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성장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전분기보다 3.6%, 1년 전보다 15.6% 급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올렸다.

수출의 기세도 꺾이지 않았다. 8월 1~

20일 수출은 552억7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6.0%,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은 61.5% 늘었다. 반도체 수출은 260억달러로 198.8% 급증해 전체 수출의 47.2%를 차지했다. 관세청 수치로 계산하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 증가액의 약 8%를 만들었다.

금융안정 쪽 경고등도 밝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전분기보다 25조9000억원 늘어난 2019조8000억원으로 처음 20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2조2000억원, 기타대출이 12조8000억원 증가했다.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6월 8조3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강남·서초가 내렸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월 셋째 주 0.22% 올라 80주 연속 상승했다.

◆ 환율은 진정...물가의 '겉'과 '속'은 반대

반대쪽 추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의 오후 3시30분 기준가는 6월 30일 1549.4원에서 이달 21일 1386.5원으로 162.9원 낮아졌다. 수입물가와 자본 유출을 자극할 위험이 줄어든 만큼 연속 인상의 급박함도 달해졌다. <2면에 계속>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내년 '800조+α' 슈퍼예산 예고

기획처, 올해비 10% 이상 확대 예고
증권가 예측치 816조~820조 제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대로 꾸리고 있다. 5년 전인 2022년도 본예산(607조 원) 대비로 33%, 10년 전인 2017년도 본예산(400조 원) 대비로 100% 늘어난 규모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 총지출을 2026년도 본예산인 727조9000억 원 대비 10% 넘게 늘어난 '800조+α' 규모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슈퍼예산'의 해를 예고한 것.

이에 2027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10.6%) 수준과 맞먹거나 이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727조9000억 원이다. 10.0%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총지출은 800조6900억 원으로 책정된다.

기획처는 '2027 예산안'의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를 목표로 각 부처 등과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초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가 올해 대비 두 자릿수 증가를 공언함에 따라 증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심

이 모아진다.

바라클레이즈와 미래에셋증권이 제시한 내년 총지출 예측치는 816조~820조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2.1~12.7% 늘어난 규모다. 미래에셋증권 관측의 상단은 840조 원이다. 이 경우 증가율이 무려 15%대에 이른다.

비블레이즈는 약 816조 원으로 예상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이 12.1%로, 올해보다 88조1000억 원 증가한 수컷다. 미래에셋증권은 820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는데 전망 범위는 800조~840조 원이다. 중위 값인 820조 원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본예산보다 12.7%(92조1000억 원) 증가한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 12%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진다면 18년 전의 기록을 갈아치운다. 2009년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선 확장재정을 펼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보다 10.6% 증가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753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내려간다. 내년 총지출이 820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8.9%에 그친다. 미래에셋증권의 전망 상단인 840조 원까지 늘어나 추경 포함 대비 증가율이 11%대의 두 자릿수를 나타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m-커버스토리

韓 텃밭 '반도체 부품'에 中 돌격 LG이노·삼성전기 '고부가' 승부

中 삼한그룹, 홍콩 상장 1.3조 조달
MLCC기업, 글로벌 매출 10%대로

삼성전기, 초고용량 MLCC 확대
LG이노, 전장·로봇 등 사업 확장

중국 부품 업체들의 기술력이 범용 제품을 넘어 인공지능(AI) 서버와 차세대 반도체 기반 등 고부가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국 스마트폰과 가전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중국 업체들이 생산능력을 늘리고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부품업체도 고부가 제품 개발과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부품 업체들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카메라 모듈 등 기존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동시에 FC-BGA와 유리기판 등 차세대 부품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AI 서버와 전장, 로봇 등에 들어가는 고부가 제품을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MLCC 업계 중국 대표기업 삼한그룹은 지난달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 71억6000만홍콩달러(약 1조3000억원)를 조달하며 태국과 독일 신공장 건설에 나섰다. 풍화고교도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무리하고 월 생산능력을 500억개까지 확대했다. 중국 MLCC 업체들의

글로벌 매출 비중은 2019년 약 6%에서 2024년 하반기 10% 안팎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중국 업체들의 투자가 AI 서버와 전장 등 고부가 제품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PCB·반도체 패키징기업 업체 싱켄커지는 20층 FC-BGA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소량 생산과 고객사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선난서킷은 광저우 공장에서 22층 이하 FC-BGA를 양산하고 24층 이상 제품도 개발 중이다. AI 서버용 FC-BGA는 통상 20층 이상의 고다층 구조가 요구된다.

LG이노텍의 주력인 카메라 모듈에서도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해지고 있다. 중국 코벨전자는 애플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진입했다. 공급사가 늘어나면서 LG이노텍 등 기존 업체들과의 수주 경쟁도 확대되고 있다.

차세대 유리기판 시장에도 중국 업체가 뛰어들었다. BOE는 2024년 투자한 유리기판 파일릿 라인을 올해 가동하고 TGV(유리관통전극), 재배선(RDL), 범프 등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도 각각 파일릿 라인을 구축해 AI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기술 난도가 높은 AI·전장용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초고용량·고온·고전압 MLCC 공급을 확대하고 글

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 등 10여개 고객사와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 AI 가속기와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용 FC-BGA 공급도 늘리고 있다. 올해 2분기 패키징 매출은 77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7% 증가했다.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 중심의 사업을 전장과 로봇, 반도체 기판으로 확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휴머노이드 로봇용 비전센싱 모듈 등 광학 기술을 활용한 제품군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은 고다층 FC-BGA 등 고부가 제품의 양산 경험을 쌓고 있지만 글로벌 고객사 공급을 위해서는 수출과 신뢰성 확보, 고객사 인증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 업체들은 글로벌 고객사 공급 경험과 고부가 제품 기술을 앞세워 중국 업체들과의 격차 유지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데 이어 고부가 제품으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AI 서버와 전장, 로봇 등 기술 난도가 높은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고객사 인증과 양산 경험을 앞세워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여야, 26일 '용산공원 캠프킴' 처리할까...공감대 속에도 대치 /사진 뉴시스
▲60명 기소·줄이침...종합특검, 명암 속 마침표

▲한 총리 "세제 개편·부동산 문제, 국민생활 파급력 높아...정교하게 접근해야"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속죄 유일한 길"

▲현대차 노사 오늘 교섭 재개..."부분 파업 유보"
▲軍 "北,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임박 징후는 미식별"

K-유통, 동남아 사업·출점 속도… 내수산업 한계 넘는다

롯데 백화점 등 70여개 점포 운영
신세계 주요국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
무신사 인니·베트남 시장 정식 진출
GS25 베트남 편의점 브랜드 2위

내수 시장의 성장 한계에 직면한 국내 유통업체가 동남아시아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높은 젊은층 비중과 경제 성장세에 K컬처 선호도가 더해진 동남아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고 K푸드·K패션·K뷰티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 는 모습이다.

23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롯데·신세계 등 대형 유통그룹을 비롯해 무신사와 GS25, 이마트24 등 국내 주요 유통 기업들은 동남아 점포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단순 상품 수출을 넘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프랜차이즈, 직접 출점 등을 통해 유통망을 구축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롯데는 2013년 인도네시아에 백화점 롯데쇼핑 에비뉴(Lotte Shopping Avenue)를 열어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2026년 기준 백화점 4개점, 롯데마트 65개점 등 70여 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롯데마트는 베트남 남부 중심의 기존 점포망을 넘어 북부 주요 산업도시 박장시에 현지 17호점인 박장점을 열었다. 매장 면적의 89%를 먹거리로 채운 그



롯데마트 베트남 박장점.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프랜차이즈 1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베트남 GS매장 전경. /GS25

로서리 전문 모델을 적용하고 자체 신선 브랜드 '프레시 365'와 1300여 종의 K푸드를 선보였다. 남부 띠아닌점에 이어 북부 박장점까지 출점하면서 베트남 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들도 동남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세계는 국내 중소 브랜드의 해외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라오스를 발판으로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의 콕콕매가물 빠뚜사이점에 오프프라이스 매장 '신세계 팩토리스토어' 해외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열었다. 현지 기후를 고려해 여름 상품 비중을 80%로 구성하고 키르시, 카바넷 등 K패션과 조선미녀, 스킨1004 등 K뷰티 브랜드를 배치했다. 신세계인태내셔널의 뷰티 브랜드 어뮤즈도 태

국 방콕 센트럴 랏프라오에 2호점을 열고 팝업스토어 운영과 H&B 매장 입점을 추진하며 현지 점점을 늘리고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 시장에 정식 진출했다. 베트남 대형 유통기업 IPPG의 계열사 ACFC와 독점 유통 계약을 맺고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호치민 등 주요 도시에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베트남 온라인 거래액이 연평균 약 40% 증가한 만큼 ACFC의 유통망을 활용해 온라인에서 확인한 수요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K편의점의 진출도 활발하다. 2018년 베트남에 진출한 GS25는 현지 맞춤형 K푸드와 가맹사업 확대를 통해 올해 6월 말 기준 443개 점포를 확보했다. 현재 남부 베트남 1위이자 전국 2위 편의점 브랜드

로 자리 잡았다.

이마트24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에 마스터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진출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K푸드 중심의 즉석 먹거리가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포 수도 31개까지 늘었다. 일평균 매출은 사업 초기보다 41% 증가했다. 이마트24는 라오스 신규 계약과 인도 2호점 출점 등 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캄보디아 점포를 향후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유통업체가 동남아로 향하는 배경에는 포화된 국내 오프라인 시장과 K컬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와 소비 침체로 내수 시장의 추가 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젊은 인구와 경제 성장세를 갖춘 동남아가 새로운 수익처로 부상한 것이다.

현지의 높은 한국 문화 선호도도 유통기업의 진출을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6 해외 한류 실태조사' (2025년 기준)에 따르면 30개국 한류 경험자 2만7400명의 한류 호감도는 평균 69.7%였다. 필리핀은 87.0%, 인도네시아는 82.7%, 태국은 79.4%로 동남아 주요국의 호감도가 두드러졌다.

콘텐츠별 인기도는 K푸드 55.1%, 음악 54.0%, 뷰티·화장품 52.6% 순이었다. 실제 이용 경험률도 음식 78.0%, 영화 77.9%, 드라마 72.9%, 음악 71.9%, 뷰티·화장품 61.8%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 기업들은 이 같은 한류 수요를 기반으로 K푸드·K패션·K뷰티를 현지 소비로 연결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1면 '연속인상 vs 숨 고르기'서 계속

LIG D&A “임원 뇌물 혐의,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 연관성 없어”

방위사업 입찰 비리 의혹

입장문 통해 임원 기소에 유감 표해
수주 과정 인과관계 등 주요쟁점 부상

구본상 회장이 이끌고 있는 LIG그룹이 방위사업 입찰 비리 의혹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검찰의 임직원 뇌물혐의 기소와 관련,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찰이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가 본사업 수주의 밑거름이 됐다고 판단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고수해 향후 법원 판결에 대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 기소에 유감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 D&A

을 표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수사부는 방위사업청 소속 5급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LIG D&A 임원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하청업체 대표와 LIG D&A 관계자 등 4명도 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이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915억원 규모의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에 참여하면서 LIG D&A에 유리하도록 점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 같은 평가 조작과 지난해 12월 LIG D&A가 수주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연결고리다. 검찰은 특혜가 제공된 6개 사업 중 3개가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선행기술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가 1조7000억원 규모 본사업 수주에 영향을 줬다는 논리다.

LIG D&A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회사 측은 해당 공무원이 평가한 과제들이 전자전기 체계개발의 핵심기술요소(CTE)와 연관성이 없고, 적용 대상 무기체계 역시 전자전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과제를 전자전기 사업의 선

행 핵심기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본사업 평가의 공정성에도 선을 그었다. LIG D&A는 해당 공무원이 전자전기 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공정한 평가를 거쳐 경쟁사와 큰 점수 차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향후 재판에서는 선행기술 과제와 전자전기 사업의 기술적 연관성, 평가 결과가 실제 본사업 선정에 미친 영향, 뇌물과 수주 과정의 인과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검찰과 LIG D&A의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린 만큼, 향후 법정에서 양측의 '수주 연결고리'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metro

권민수 부총재 첫 금통위

물가는 한 방향으로 읽기 어렵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에서 2.8%로 낮아졌고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했다. 생활물가 상승률도 2.5%로 둔화했다. 그러나 한은의 물가인정목표 대상인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목표치(2%)를 웃돈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5%에서 2.6%로 높아졌고 개인서비스 물가도 3.5% 올랐다.

선행 가격지표도 부담은 남았다. 7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보다 0.4%, 수입물가는 1.0% 내렸지만 1년 전보다는 각각 7.7%, 18.7% 높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7월 회의에서도 세 명이 인상을 주장했고, 다수 참석자는 물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회의에는 권민수 신임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처음 참여한다. 권 부총재는 지난 21일 성장·물가·금융안정과 금리 인상의 효과·부작용을 함께 살펴 “신중하면서도 필요하면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의 결정표는 ‘추가 인상이 필요한가’보다 ‘지금 연속으로 해야 하는가’를 가른다. 금리를 올리면 성장과 금융불균형에 선제 대응했다는 뜻이고, 동결하면 환율과 헤드라인 물가의 진정, 정책 시차를 확인하겠다는 뜻이다. 어느 쪽이든 한은이 5월 2.6%로 제시한 올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일지, 6개월 조건부 금리 경로가 어디를 가리킬지가 다음 인상의 시점과 종착점을 더 분명히 보여줄 전망이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금리 경로를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큰 유조선에 타는 것”에 빗대며 “시간을 두고 모든 다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北, 장마당 등 비공식 부문 소득 양극화 심화

가뭄·전력난 등 경제충격 영향

북한이 2014~2015년 가뭄과 전력난, 대(對)중 수출 급감이 겹친 경제충격을 겪은 뒤 장마당 등 비공식 부문의 소득 양극화가 뚜렷하게 심화했다.

2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준시장화 아래 경제충격과 소득 양극화: 북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북한의 비공식소득 양극화는 2011~2014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

조용신 한은 경제연구원 경제안보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11~2020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북한 경제가 2014~2015년 식량과 전력, 외화 부문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농작물 생육기인 5~8월 북한 전역의 강수량은 전년보다 53.2% 감소했다.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 강수량도 34.8% 줄었다. 이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은 각각 6.5%,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공급 부족이 겹

치면서 쌀값은 지난 2014년 10월 북한 원화 기준 kg당 6633원까지 올라 같은 해 7월보다 32.5%, 전년 동기보다 20.1% 상승했다. 2015년 수력발전량도 130억kWh에서 100억kWh로 줄었다.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과의 무역액은 지난 2015년 54억달러로 전년보다 14.7%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이 각각 12.6%, 16.4% 줄었고, 주요 외화 수입원 이던 철강제품 수출은 54.9% 급감했다.

연구 결과 경제충격 이후 전체 비공식 소득의 중앙값은 충격 전 소득분포의 55~60분위로 이동했다. 시장활동이 점차 회복되면서 소득 수준 자체는 전반적으로 소폭 높아졌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앙값 이동을 제거하고 소득분포의 모양만 비교하면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충격 이후 하위 10% 구간의 상대밀도는 충격 전보다 4.5배 이상 높아졌다. 전체 소득 수준이 일부 회복됐음에도 저소득 구간으로의 쏠림은 오히려 강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확률 표본이어서 북한 전체 주민의 소득분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조 부연구위원도 경제충격의 인과효과나 북한 전체의 소득불평등 규모를 직접 추정 한 연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삼성전기, AI 서버부품 강화… LG이노텍, 로봇센싱 영토 확장

m-커버스토리

中 내수·세트산업 업고 고부가 진격
AI용 MLCC·FC-BGA까지 추격

삼성전기, 글로벌 빅테크 공급 확대
LG이노텍, TDK 손잡고 센싱 개발

美 규제 강화로 비중국 수요 부상
기술격차 유지·고객 다변화가 관건

중국 전자부품 업체들이 범용 제품을 넘어 인공지능(AI)·전장 등 고부가 시장으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다. 거대한 내수시장과 스마트폰·전기차 등 자국 세트업체의 성장을 발판으로 생산 경험과 기술력을 쌓은 영향이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AI·전장·로봇 등 기술 난도가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中 세트산업 성장에 부품업체도 몸집 키워

중국은 스마트폰과 가전은 물론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 전자부품 수요가 많은 산업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AI 산업의 성장은 부품 수요의 양뿐 아니라 종류도 바꾸고 있다. 전기차에는 스마트폰보다 많은 MLCC가 필요하고, AI 서버 역시 높은 소비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량·고신뢰성 MLCC를 사용한다. AI 가속기와 서버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이 높아지면서 고다중대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면적 FC-BGA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자립 정책도 현지 부품업체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확정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 전자정보 산업의 전 산업망 혁신을 추진하고 핵심 부품·전자 부품·전용 소재의 기술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이 아직 고부가 부품 시장에서 한국·일본 업체와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서버용 MLCC와 FC-BGA 등은 높은 수율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데다 글로벌 고객사의 장기간 인증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업체들은 자국 스마트폰·전기차·AI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해 양산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삼성전기, AI·전장용 고부가 제품으로 격차 유지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기는 범용 제품보다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AI와 전장용 부품 비중을 높이고 있다. MLCC에서는 AI 서버용 초고용량·고온·고전압 제품 공급을 확대하는 중이다.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과 소비전력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MLCC의 성능도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삼성전기는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와 주요 반도체 업체 등 10여개 고객사와 MLCC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가 계약을 요청한 고객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AI 서버용 최선단 MLCC의 경우 높은 용량과 내열·내압 성능, 신뢰성이 요구돼 공급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FC-BGA에서도 AI용 제품 비중을 높이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2분기 신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에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용 FC-BGA 공급을 시작했다. 3분기에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의 신규 AI 가속기와 서버 CPU용 제품 양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용 고부가 기관 수요에 대응해 국내의 생산능력도 늘릴 계획이다.

◆카메라에서 '로봇의 눈'으로… LG이노텍, 신사업 '박차'

LG이노텍은 스마트폰카메라모듈에서 확보한 광학 기술을 전장과 로봇으로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특정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성장성이 높은 신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로봇 부품에서는 비전 센싱을 중심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LG이노텍은 지난달 일본 TDK와 로봇용 비전·촉각 센싱 기술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사는 카메라모듈과 TDK의 센서 기술을 결합한 비전 센싱 모듈과 로봇의 접촉 정보를 감지하는 촉각 센싱 모듈을 공동 개발해 2027년 출시한다는 목표다.

생산 기반도 확대하고 있다. LG이노텍은 올해 베트남 반도체기판 공장 증설에 착수했다. 신공장은 2027년 5월 준공을 목

표로 하며 RF-SiP와 FC-CSP, FC-BGA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앞서 베트남 하이퐁에는 약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카메라모듈 V3 신공장을 구축했고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미중 갈등에 공급망 재편… '비중국' 수요는 기회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변화는 국내 업체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달 외국산 첨단 로봇을 국가안보 위험 장비 목록인 '커버드 리스트'에 추가했다. 대상은 특정 국가로 한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산 로봇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규제 강화는 로봇 완제품뿐 아니라 부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G이노텍은 휴머노이드용 비전 센싱 모듈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삼성전기도 연내 휴머노이드용 카메라모듈 초도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산 로봇의 미국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국내 업체들도 북미 고객사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과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품업체의 사업 환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은 고부가 제품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객사와 생산지점을 다변화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윤홍근 BBQ 회장, 30년 경영 철학 공유

“현실에 안주하면 성장 없다”

HDI CEO 서머포럼 연사로 강연
외환위기 등 위기 극복 경험 공유
황금올리브·치킨대학 성장 기반 마련
57개국 800여개 매장 글로벌 확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국내 리더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돌파할 핵심 무기로 ‘안주하지 않는 선택’과 ‘끊임없는 개혁’을 제시했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윤홍근 회장이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시 탑스텐 호텔에서 열린 ‘제43회 2026 인간개발연구원(HDI) CEO 서머포럼’에 연사로 나서 ‘위기를 기회로,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주요 기업 및 기관 최고경영자 1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 윤 회장은 창립 이후 31년간 거친 외환위기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역경의 순간들을 조명했다. 그는 지난 과정이 단순한 성과의 나열이 아닌, 고비 때마다 이뤄진 과감한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자평했다. 이 과정에서 2005년 황금올리브치킨을 출시하고 치킨대학을 설립하는 등 제품·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브랜드 성장의 기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의 외형 확장보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혁 기조는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졌다. BBQ는 지역별 소비 문화와 식습관에 맞춘 현지화 기



제너시스BBQ 그룹은 윤홍근 회장이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시 탑스텐 호텔에서 열린 ‘제43회 2026 인간개발연구원(HDI) CEO 서머포럼’에 연사로 나서 ‘위기를 기회로,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윤홍근 회장의 강연 모습.

/제너시스BBQ 그룹

법을 도입했다. 현재 북미와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 57개국에서 80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윤 회장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만 따라가서는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며 기술 과잉 시대일수록 기업이 제공해야 할 본질적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앞으로도 BBQ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시장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K-푸드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metro

SK하이닉스, 94조 투자·환원… 남는 현금 150조 전망

용인·청주 생산시설에 54조 투자
40조 자사주 매입해 전량 소각

SK하이닉스가 94조원 규모의 투자와 주주환원에 나선 가운데 올해 설비투자 등을 제외하고 남는 잉여현금흐름이 15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메모리 호황으로 현금 창출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대규모 증설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확대할 여력도 커지고 있다.

23일 SK하이닉스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회사는 이달 용인과 청주 생산시설에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두 결정의 명목 규모를 합하면 94조3000억원이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현금 투자와 주주환원 규모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일본계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잉여현금흐름을 156조원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318조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잉여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에서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다.

다만 94조3000억원이 올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은 아니다. 용인 Y2와 청주 M17에 들어가는 54조3000억원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자사주 매입은 지난 20일 시작해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확보한 현금도 상당하다. 2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전분기 말보다 33조6000억원 증가한 88조원으로 집계됐다. 차입금은 7000억원 감소한 18조6000



생성형 AI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현금 확대를 형상화한 이미지.

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현금은 69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현금 창출력을 끌어올린 것은 사상 최대 실적이다. 2분기 매출은 79조3187억원, 영업이익은 60조5426억원으로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7%, 557% 증가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AI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늘어난 현금을 바탕으로 주주환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일 4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취득 예정 주식은 약 2407만주로 발행주식의 약 3.3%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소각 사례 가운데 금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향후 주주환원 기준도 높였다. SK하이닉스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잉여 현금흐름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기존 ‘50% 범위 내’에서 하

한선을 50%로 높인 것이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은 2027년까지 최소 180조원의 추가 주주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무라는 올해와 내년 주주환원 규모를 각각 78조원과 159조원으로 예상했다.

주주환원과 함께 생산시설 투자도 이어간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2에 35조2000억원, 청주 M17에 19조1000억원 등 총 54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Y2와 M17은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시설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해외 투자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27일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시설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고대역폭메모리 등 AI용 메모리의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금융위·금감원도 지방으로?... “업무 효율성 등 검토해야”

내일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 공개
금융위·개인정보위 세종 이전 추진
금융 현장과 물리적 거리 떨어져
이전 시 이직·퇴사 고려 응답 70%

정부가 연내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신호탄으로 내년부터 수도권에 남은 350여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금융 기능의 지방 분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와 자본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금융 정책·감독기관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인력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 이전 시 이직·퇴사



지난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위·금감원도 지방이전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응답은 69.7%였다. ‘보통’ 응답까지 포함하면 85.6%가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은 350여개 기관으로,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153개)의 두 배를 웃돈다. 이에 따른 이주 수요도 약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융위와 개인정보위의 세종 이전을 우선 추진한다. 두 곳은 외교·통일·국방·법무·성평등가족부 등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의 기관을 제외하면 정부서울청사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이전 대상 중앙행정기관이다.

문제는 금융위 이전 이후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정책과 감독,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이전 절차도 복잡하다. 금감원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은 설립 근거법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역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이전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책은행 노조들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연 데 이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금융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정책·감독기관과 금융 현장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주요 금융회사는 물론 자본시장 핵심 기능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검사·감독과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비

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검사 업무가 많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707회의 검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검사에 투입되는 인원만 2만8229명에 달한다.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도 부담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금융시장과 회계·법률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지방 이전 과정에서 인력 유출이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법률·회계 인력 시장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신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은 위기 상황에서 정책당국과 감독기관, 금융회사 간 즉각적인 공조가 필요한 산업”이라며 “물리적 분산이 금융시장 대응 속도와 감독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허정윤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삼성·SK 반등에 빛투 ‘9조9503억’ 쌓였다

하루 만에 합산 잔액 5311억 늘어
증권가, HBM 실적 성장엔 ‘등의’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 두고 이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하자 빛투(빛내서 투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주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용잔고가 빠르게 복원되면서 추가 하락 시 반대매매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코스콤 CHECK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신용용

자 잔액은 지난 21일 9조9503억원으로, 하루 만에 5311억원 늘었다. 이날 신규 신용용자도 총 2조4943억원 발생했다.

합산 잔액은 이날 4일 8조3769억원에서 1조5735억원(18.8%)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 20.2% 오른 5조1059억원, SK하이닉스는 21.7% 증가한 4조8444억원을 기록했다.

◆HBM 성장에는 공감...범용메모리 전망은 온도 차

증권가는 HBM이 두 회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지만,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가 미칠 영향을 놓고는 시각이 갈린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이 영업환경의 변화보다 차익 실현과 수급 부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이견 ‘매수’와 목표주가 37만원을 유지하고 현 주가를 비중 확대 구간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범용 D램의 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더라도 HBM 가격과 출하량 증가가 전체 평균판매가격 개선을 이끌 것

으로 전망했다.

반면 박유익 키움증권 연구원은 범용메모리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를 반영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39만원에서 35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2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낮췄다.

높은 메모리 가격으로 스마트폰 업체들이 구매에 보수적으로 돌아섰고 노트북과 PC용 메모리 수요도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는 이유다. 2027년 예정된 공급 증가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 업체의 점유율 확대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했다.

다만 키움증권 역시 두 종목의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다.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 확대와 SK하이닉스의 HBM

실적 성장이 주가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반도체로 이동한 신용용자...반대매매 위험도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용용자가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신용용자 종목의 주가가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해당 물량이 주가 하락을 가속해 다른 신용거래의 반대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따뜻한 연결 1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평화를 부르는 따뜻한 말, 어머니 사랑의 언어 #내 번째

대한민국 대통령 단체표창·정부 포상·대통령 표창 수상
영국 여왕 자원봉사상 수상(영국 하나님의 교회)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금상 89회, 라이프타임상)

일부 시 생성 이미지 포함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응원할게”, “오늘도 애썼어”
주저앉고 싶은 순간, 다시 일어설 힘이 돼주던
어머니의 다정한 사랑의 말들.

더 많이 연결되었지만 더 외로운 시대,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교회 국내외 400만 성도들은
가정과 이웃, 지역사회에 선한 변화를 일구며
포용적이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갑니다.

“평화를 부르는 어머니 사랑의 언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2024년부터 시작한 소통과 화합 캠페인으로 현재까지 134개국에서 연인원 약 546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담긴 9가지 언어로, 가정·이웃·학교·직장 등 일상의 변화에서 시작해 평화로운 세상을 조성해 갑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WORLD MISSION SOCIETY CHURCH OF GOD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합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민주당 “1주택자 거주 구분 없애야”… 종부세 개편 제동

고위당정협의회서 정부에 요청
“불가피한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이번주 수정안 최종 조율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과세기준을 살려주시 14억원, 비거주시 9억원으로 정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고위당정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주택 공급, 부동산 세제 개편, 중점 법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에 사무총장, 권칠승 정책위의장,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채아배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협의회에 참석했다.

당정은 1주택자 종부세의 기본공제 과



한성숙 국무총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기준 가운데 거주·비거주 구분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국민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세부담을 높일 경우 세부담이 우려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월세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안은 이번주에 가닥이 잡혀 정부안으로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종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9월 1일에 세제 개편안이 보고되고 3일에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가닥을 다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한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당정은 주택 시장 안정의 핵심이 주택 공급 확대에 있다고 보고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고,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에서 나간다.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재편으로 불안정해진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련된 권한을 이양 받아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당정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당협 재선출 놓고 내홍… 장동혁 쇄신안 차질

국힘 지도부·의원 이견으로 논의 중단
26일 발표 예정된 쇄신안 ‘빨간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투표를 통해 당협위원장들을 재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 지도부의 내부 의견 차이로 논의가 중단됐다. 아울러 비(非)당권과 의원에 대한 중징계 여파까지 겹치면서 취임 1주년을 맞아 준비한 장 대표의 당 쇄신안 발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의 임기를 기존 관례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하는 대신 일괄 사퇴 후 당원 투표 등을 거쳐 재선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일부 지도부의 반대로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두 차례의 비공개 회의에서도 지도부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당협 재선출 논의는



장동혁(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2년차 실정 평가 대토론회 '벼랑 끝 서민·중산층, 흔들리는 대한민국'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답보 상태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당협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당 지도부가 논의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장 대표는 개인 일정으로 이번 의총에는 참

석하지 못했다.

다만 최고위원들의 의결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장 대표를 비롯해 김민수·김재원·양향자·조광한 위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져서다. 만약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의원들과 지도부 간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李, 여당과 밀착 행보… 당정 공조 강화

내일 새 여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국정과제 입법이나 대야 대응 등 당정 공조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새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다. 또 28일

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건의사항과 민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김 대표와 당권 도전을 했던 송영길·정청래 의원,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불러 만찬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여당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것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집권 2년차 국정동력을 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9월부터 정기국회가 열릴 예정이며, 올해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첫 국감이나 마찬가지이니 여당의 뒷

받침이 필수적이라서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며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공소취소 논란, 연임 프레임 등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당과 손발을 맞춰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 국정 뒷받침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빠른 속도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용기·권미경 최고위원을 지명하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용해 당정 공조 기조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서예진 기자 syj@

용산공원 두고 대치… 26일 본회의 분수령

與 “청년 주거” vs 野 “국가공원 훼손”

정부에서 서울 내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구 캠프킴(전 주한미국 주둔지)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이번주 26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 후속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내용이고, 도시재정비특별법(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정책조정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2024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라”며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미래세대에게 녹지를 제공하겠다는 원칙도 저버리고 난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징벌적 과세와 공급 절벽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이제 와서 국가 공원을 같이놔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국토부는 용산 어린이 정원을 넘어 반한 부지 전체를 주택 후보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으로 녹지 보존을 못박았고, 문재인 정부도 주변 부지를 공원에 편입시켰다. 진보 정권 스스로 세운 원칙을 건어찬 자기당착”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뻔뻔하게 청년 주거 현실을 핑계로 댈다. 인근 국군재정비리단 등 당장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 국유지 제안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부동산을 초토화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땀질 처방의 실패를 가리기 위해, 백년대계 국가공원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본회의 때 민주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입법 지연 전략을 펼칠 것도 검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천준호·김승수 민주당·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두고 조율하고 있는 만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한 주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이 지난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고 이번주에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MOZZARELLA
BURGER
CHEF EDITION

바질에 토마토를

REALLY?

버거를 더 맛있게

NAPOLINI!



By chef 나폴리 맛피아

나폴리 모zzarella버거

LOTTERIA™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여력 개선됐지만… 생보·손보 업권별 ‘양극화’

금감원, 2025 건전성 살펴보니

보험사 K-ICS 비율 212.3%
전분기 말 보다 1.5%p 올랐지만
생보 4.4%p 오르고, 손보 2.2%p ↓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키스)비율이 개선됐지만 업권별 온도차는 뚜렷하게 갈렸다. 전체 평균은 올랐지만 손해보험사 K-ICS 비율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보험사 자본 체력을 평균값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말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키스비율은 보험회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응할 수 있는 자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전체 평균만 보면 보험업권의 건전성

이 개선된 것 처럼 보이지만 업권별 흐름은 달랐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05.8%로 전분기보다 4.4%p 오른 반면, 손해보험사는 221.9%로 2.2%p 하락했다. 평균 개선에도 생보와 손보의 자본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K-ICS 비율이 오른 것은 가용자본 증가 폭이 요구자본 증가 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가용자본은 28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9조3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33조8000억원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가용자본 확대를 모두 기초체력 개선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보험계약마진(CSM) 감소와 결산배당은 가용자본을 줄이는 요인이었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가 이를 상쇄했다. 보험사 건전성 지표 개선에 자본시장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주가 상승은 보험사 보유 주식가치를 높여 가용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주식위험액을 확대해 요구

자본도 키운다. 금감원도 “주가 상승에 따른 주식위험액 증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액 감소분을 상쇄하면서 요구자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증시 랠리는 보험사에 일방적인 호재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자본에는 플러스 요인이지만 위험기준 자본제도 아래에서는 요구자본도 함께 키우는 변수다. 전체 K-ICS가 개선됐음에도 손보업권의 비율이 하락한 배경에도 시장위험과 회사별 자산 포트폴리오, 보험위험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별로도 허비가 엇갈렸다. 생보사 중 교보생명 226.0%로 전분기보다 20.8%p 올랐고 삼성생명은 198.0%로 5.2%p 상승했다. 반면 한화생명은 157.5%로 0.7%p 하락했다. 손보사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보, 메리츠화재가 하락한 반면 현대해상과 KB손보는 상승했다. 같은 업권 안에서도 자산 구성과 시장위험 노출도에 따라 K-ICS 방향이 갈렸다.

K-ICS 총량뿐 아니라 자본의 질도 중

요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7년부터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기본자본비율 기준을 50%로 설정했다.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처럼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다. 반면 보완자본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처럼 손실흡수성에 제약이 있는 자본을 포함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K-ICS 비율을 관리해 왔다. 기본자본 규제가 본격화하면 단순히 자본성증권으로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생길 수 있다. K-ICS 비율이 높더라도 기본자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본 체력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보험사가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이호성 하나은행장(가운데)이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함께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기보·신보

청년기업에 자금지원 총 2000억 보증 대출

하나은행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청년기업에 총 2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을 공급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청년기업 도약을 위한 Y-BRIDGE 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사업가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고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만 3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와 청년이 최고경영자(CEO)인 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공급한다. 보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청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기금에 납부하는 고정보증료 0.3%도 하나은행이 전액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대표와 개인사업자,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연 6.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내맘적금 금리우대쿠폰’을 5만장 한도로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드론 조이니 ‘고금리’ 현금서비스·리볼빙 잔액 증가

카드사 9곳, 7월 카드론잔액 42.8조
정부 가계대출 관리에 두달째 하락
급전 필요한 서민들 이자부담 확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여파로 카드론 잔액이 두 달째 감소세다. 반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은 증가했다. 금리가 더 높은 단기카드 대출로 수요가 쏠리며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의 7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7957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달 연속 내림세다. 지난 5월(43조2534억원)에서 6월(42조9093억원) 3441억원 줄더니, 7월 다시 1136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여파가 지속되면서다. 앞서 금융감독은 지난 5월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붙어 있다.

/뉴스시

주요 카드사를 소집해 카드사 총량 관리 목표를 준수달라 적극 당부한 바 있다.

반면, 현금서비스 등 단기 카드 대출 서비스는 증가했다. 지난달 현금서비스 잔액은 7조251억원이다. 전월 대비 2409억원 오르며 세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5월에는 3073억원, 6월에는 2804억원 확대됐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도 확대되고 있다.

리볼빙 잔액은 전월 대비 955억원 오른 6조8759억원이다. 지난 6월에 322억원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증가 폭이 약 3배 늘었다.

카드론 대신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잔액이 확대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주

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와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각각 18.16%, 17.38%로 집계됐다. 반면,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 수준으로 형성됐다.

취약 차주 금리 부담은 더 심하다. 신용평가점수 700점 이하 차주들의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는 19.16%다. 결제성 리볼빙은 19.03%다.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한다. 같은 구간 카드론 평균 금리는 17.45%다.

한편, 향후 금융당국의 카드론 관리 강화 기조는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회의를 열고 총량 목표치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의 카드론 한도 확대 요청에 따라 당국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각 카드사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전달할 방침이다. /안재선 기자 wotis4187@

이번주 전국 10개 단지서 5430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모델하우스 총 5곳서 오픈 예정

8월 넷째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543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649가구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쌍용더플래타넵서대문’, 경기 부천시 상동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 광주 북구 월출동 ‘제일풍경채점단3지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경기 부천시 상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상동역롯데캐슬시그니처’를 분양한다. 지하 8층~지상 최고 49층, 7개동, 전용면적 84~192㎡, 총 1859가구 규모다. 지하철 7호선 상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로 인근 부천중

합운동장역에는 GTX-B노선(2031년 개통 목표)과 GTX-D노선(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백화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상동호수공원, 부천시청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상일초·중, 상원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교육환경도 갖췄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 경기 성남시 신현동 ‘성남북정2A1신현하망타운(공공분양)’, 인천 미추홀구 학곡동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가 인천 미추홀구 학곡동 일원에 ‘시티오씨엘9단지오션파크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9개동, 전용면적 59~136㎡, 총 194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을지연습서 ‘위기대응 훈련’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 등 점검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6 을지연습’에 참가해 국가 비상 상황에서도 농업인과 국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위기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을지연습에서 NH농협은행은 사이버 위협 대응태세를 비롯해 전시 금융지원,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금융업무 취급 등 다양한 우발상황을 가정한 분야별 조치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복합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기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복합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금융

업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영업 연속성계획(BCP)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체사업장 가동, 핵심업무 3시간 이내 복구, 영업점 PC 및 단말기 복구훈련 등을 통해 위기 발생 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은행장이 직접 훈련을 주관해 신속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실시하고,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조치절차를 숙달했다.

NH농협은행은 연습 종료 후 자체 사후강평을 실시해 훈련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과 개선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2027년도 총무실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형 기자

캠코

5967억 규모 압류재산 오늘부터 1659건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5967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659건을 공매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부동산 1609건, 동산 50건이다. 임야 등 토지가 97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197건을 포함해 총 356건이 공매된다. 특히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도 879건 포함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매 입찰시에는 관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입찰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구동모터코어 중심 사업구조 재편

STS 이어 후관사업 정리 수순
구동모터코어 분야 투자 확대
모빌리티 소재·부품기업 전환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포스코그룹의 사업 효율화 기조와 발맞춰 스테인리스(STS) 사업을 떠난 데 이어 후관 사업 매각을 추진하며 구동모터코어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사명 변경 당시 내세운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업으로의 전환 방향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STS 전문 자회사 포스코SP는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STS 정밀 재관재 가공 사업과 관련 자산 2465억원을 넘겨받아 독립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결정된 사업 이관은 지난달 31일 영업



포스코인터내셔널 멕시코 구동모터코어 공장.

양수를 거쳐 마무리됐다.

STS에 이어 후관 사업도 정리 수순이다. 지난해 12월 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모빌리티솔루션은 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해 포항·광양 생산설비와 사업권 매각에 착수했다. 예상 거래가는 600억~700억원이다.

두 사업 분리는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의 기존 사업 전환 방향과 맞닿아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20년 STS·TMC(모터코어)·후관가공 사업을 떼어 포스코SPS를 설립해 제조·가공 기능을 한 데 모았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철강가공 이미지를 벗고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의 사명으로 바꿨다.

STS·후관을 정리하는 한편 구동모터코어에는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은 지난 1월 포스코DX·아스가 와전기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천안·포항과 멕시코·폴란드·인도 생산라인에 산업용 로봇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운반·품질 분류 공정을 자동화해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생산능력도 늘리고 있다. 멕시코 2공장이 양산에 들어갔고 폴란드에도 생산거점을 구축했다. 오는 2035년 연 1000만대 생산능력과 글로벌 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희토류·영구자석 등 구동모터 핵심 소재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한다.

사업 확대는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모터코어 사업 매출은 3400억원으로 전년대비 5% 늘었고, 영업손익은

2024년 20억원 적자에서 19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판매량도 216만대로 14.9% 증가했다. 회사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한 하이브리드차(HEV) 중심의 판매 믹스 다변화와 원가·공정 개선을 배경으로 꼽았다. 올해 구동모터코어 판매량도 2분기 64만대로 전년 동기 58만대보다 약 10%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 판매량은 4만대에 9만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후관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이번 재편은 그룹의 사업구조 개편 기조와 방향을 같이하며,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차원에서는 구동모터코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 모빌리티 밸류체인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metroseoul.co.kr



metro

“GV90 개발 과정 핵심가치는 ‘고객 최우선’”

현대차그룹 ‘GV90 테크 브리프’

플러그십에 걸맞는 완성도 초점
“제네시스 사상 가장 특별한 차량”

“단순히 새로운 SUV를 개발하는 일을 넘어 제네시스에게 럭셔리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는 과정이었다.”

만프레드 하러 현대자동차그룹 R&D 본부장(사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초대형 플러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GV90’의 테크 브리프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테크 브리프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GV90 월드 프리미어’에 이어 진행된 행사로 차량에 적용된 핵심 기술의 개발 과정을 연구개발 책임자가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GV90은 공개 전부터 제네시스의 모든 기술 역량이 집약된 플러그십으로 기대를 모아온 만큼, 그 기술들이 어떤 철학 아래 만들어졌는지에 글로벌 미디어의 시선이 집중됐다.

발표는 개발 철학에 이어 제품 개요와 주요 상품성, 내외로 아치 게이트, 차량 안전, 주행 성능과 정숙성, 제조 기술 순으로 이뤄졌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네시스 GV90 테크 브리프에서 현대차그룹 R&D본부장 만프레드 하러 사장이 발표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네시스 개발담당 허광훈 상무는 GV90을 ‘제네시스가 지금까지 만든 차 가운데 가장 어려운 차’라고 소개했다. 허 상무는 “플랫폼과 배터리, 전원 체계, 차체 구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물론 차량을 생산할 공장까지 새로 만들었다”며 “거의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한 결과, 제네시스 사상 가장 특별한 차량이 완성됐다”고 말했다. 특히 허 상무는 ‘고객 최우선’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플러그십에 걸맞는 완성도를 구현하는데 개발의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실제 GV90의 전복 시

험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시속 110km로 달리던 차량이 경사로를 타고 넘어가며 전복되는 순간, 루프 에어백을 포함한 12개 에어백이 빠르게 전개되며 탑승객을 보호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3800만건을 돌아보며 얻은 결과다.

제네시스바디설계실 이대희 실장은 “각국 법규와 충돌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데 멈추지 않았다”며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고객이 실제 맞닥뜨릴 수 있는 순간까지 대비하는 게 제네시스가 생각하는 안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또 다른 축은 GV90이만 들어지는 제조 현장이다. 제네시스생기실 정재현 실장은 GV90의 생산을 위해 새롭게 지은 울산 EV공장을 소개하며, 현대차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제조 기술을 이곳에 집약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허 상무는 “GV90에 담긴 기술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상품기획과 생산, 품질, 판매까지 전사가 새로운 기준을 세우며 함께 완성한 결과”라며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고객이 차를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메르세데스-벤츠 S500 4MATIC Long.

/양성운 기자

더 빠르고 조용하게… 프리미엄 클래스 뽐내

YG의 CAR TALK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달리는 차·이동하는 공간’ 가치 극대화

메르세데스-벤츠의 프리미엄 가치를 완벽하게 담아낸 S-클래스는 ‘회장님 차’로 불린다.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는 오너드라이브(Owner-driven)보다 뒷좌석에 앉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쇼퍼드라이브(Chauffeur-driven)의 차로 국내 누적 판매량은 10만대가 넘는다. 5년 만에 국내에 새롭게 출시한 S-클래스의 시승을 통해 차량의 매력을 느꼈다. 강원도 횡성에서 영월 청령포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오너와 쇼퍼드라이브 두 가지를 경험했다.

S500 4MATIC Long에 탑승하는 순간 S-클래스다운 안락함을 체감할 수 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허벅지부터 등까지 닿는 모든 곳을 부드럽게 감싼다. 움푹 패인 노면이나 과속방지턱을 지날 때에도 부드럽게 흘러간다. 이는 노면 상태에 맞게 각 바퀴의 댐퍼를 조절해 진동을 최소화하는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 덕분이다. 다만 노면 충격을 완벽하게 흡수하기 위한 부드러움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S580 4MATIC Long에만 적용된 각 휠의 감쇠력과 차고를 개별 제어하는 E-액티브 바디 컨트롤 기술이 궁극해졌다.

또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곳곳에 적용된 흡음재와 이중 접합 차음 유리 덕분에 고속 주행에도 진동과 소음이 느껴지지 않았다. 고속 주행에도 계기판을 확인해야 속도를 알 수 있을 정도였다.

S500 4MATIC Long은 2999cc의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대 449마력의 출력과 61.2kgf·m 토크는 넉넉한 힘을 갖추고 있다. 신형 S500 4MATIC Long의 rpm(엔진의 분당 회전수) 기준 최고 출력은 엔진 개선 과정에서 전작 대비 줄었지만,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0.2초 감소했다. 초기 가속은 이전보다 좋아졌다. 다만 이같은 성능 개선 영향인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빠르게 치고 나가는 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번 신형 S-클래스에는 2023년 개발된 벤츠의 통합 운영체제 MB.OS가 처음 탑재됐다. MB.OS는 인포테인먼트와 주행 보조, 차체 및 편의 기능 등을 제공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도 지원한다.

다만 주행보조 기능은 기존 차선을 유지한 채 앞차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기능에서 차선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주행 중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경써야 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향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지 않아도 되는 레벨2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도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S-클래스는 ‘쇼퍼드라이브(Chauffeur-driven·수행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대명사인 만큼 뒷좌석은 최고의 품격을 제공했다. 등받이를 최대 133.5도까지 젖히고, 1열을 최대 37mm 앞으로 당기면 마치 비행기 1등석에 탑승하는 듯한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

S500 4MATIC Long은 ‘달리는 차’와 ‘이동하는 공간’ 사이에서 타협하지 않고,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원하는 소비자에게 S-클래스만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통합 진에어’ 내년 3월 출범… LCC업계 판도변화 예고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합병계약

내년 3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항공기 58대 규모의 ‘통합 진에어’ 출범이 추진되면서 LCC 수송객 1위인 제주항공과의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통합 대상 3사가 기존 여객 기반과 노선망을 결합하는 만큼 단순 기단 규모를 넘어 수송력과 거점 경쟁에서도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17일 통합 진에어 출범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3사의 항공기는 진에어 31대, 에어부산 21대, 에어서울 6대 등 총 58대로 같은 시점 제주

항공 45대를 웃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두 곳의 여객만 합쳐도 제주항공을 웃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7월 제주항공 수송객은 774만 5472명으로 개별 LCC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진에어는 637만 8177명, 에어부산은 443만 3525명을 수송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1081만 1702명으로 제주항공보다 306만 6230명, 39.6% 많다. 여기에 통합 대상인 에어서울의 123만 7946명까지 더하면 통합 3사의 여객 규모는 1204만 9648명에 이른다.

부산 거점도 통합사의 강점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

607만 1022명 가운데 에어부산이 157만여명, 진에어가 88만 8000여명을 수송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전체의 약 40% 수준이다. 제주항공의 같은 기간 김해공항 국제선 수송객 86만 4000여명의 약 2.8배다. 통합 진에어는 인천발·부산발 노선을 연계해 수도권과 영남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개별 LCC 기준 높은 수송 실적과 탑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14만 6672명을 수송하며 LCC 1위를 기록했고 올해 1~7월 매달 100만명 이상을 태운 유일한 LCC다. 7월 탑승률도 90.8%로 국적사 평균 86.3%를 웃돌았다.

/이승혁 수습기자 sh95@

“품질은 양심”… 시몬스, 바나듐 스프링으로 프리미엄 새 기준

포스코·고려제강과 바나듐 공동개발
경강선보다 5배 강한 스프링 적용
1000만회 내구시험으로 품질 검증
팩토리움 하루 600~700개 생산
소재부터 물류·고객관리까지 통합
‘시몬스 스탠다드 5’ 새 기준 제시

포켓스프링에 들어가는 바나듐 스프링의 총 길이는 연간 기준 약 30만km, 지구 7.5바퀴와 맞먹는다. 1개의 포켓스프링에는 260mm의 바나듐 스프링이 들어간다.

그런데 시몬스는 한 종류의 포켓스프링만 쓰지 않는다. 허리, 엉덩이 등 신체의 무게 중심, 몸의 곡선 등 탄력, 지지력, 형태 등에 따라 ▲오리지널 포켓스프링 ▲S-포켓스프링 ▲I-포켓스프링 ▲더블-포켓스프링 ▲어드밴스드 포켓스프링을 조합해 하나의 매트리스를 완성한다.

특히 2024년부터는 대부분의 금속이나 강철보다 강한 바나듐으로 스프링을 만들어 쓰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 이천에 있는 시몬스 팩토리움. 시몬스는 호텔 전용 매트리스까지 포함해 총 40개가 넘는 모델을 이곳에서 모두 생산한다. 축구장 10개 크기와 맞먹는 시몬스 팩토리움은 하루 최대 1000개 이상의 매트리스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각 공정의 품질, 제품 완성도 등을 고려해 하루에 600~700개 수준만 생산하고 있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시몬스 침대의 생산 거점이자 심장 부다.

시몬스에서 생산물류전략부문을 총괄



시몬스가 지난 21일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움에서 진행한 미디어 간담회에서 이종성 생산물류전략부문 총괄 부사장(왼쪽 3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하고 있는 이종성 부사장은 “시몬스 팩토리움은 2017년 경기 이천에 구축해 올해가 9년째로, 소재 선정과 검증,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물류, 고객 케어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나듐 포켓스프링인데 시몬스와 포스코가 매트리스에 최적화된 스프링 선재를 함께 개발하고 고려제강이 이를 정밀 생산해 공급하면 우리가 숙면공학 노하우를 더해 매트리스를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를 지향하는 시몬스는 바나듐 포켓스프링 개발을 위해 올해 1월 포스코, 고려제강과 3자 협력을 체결했다.

생산을 총괄하고 있는 이동현 이사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2024년 7월에 첫선을 보였다. 하지만 바나듐 수급 안정화, 품질 관리 안정화가 중요했고 무엇보다 신소재·신기술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생

태계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올해에 3자간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재 개발, 정밀 가공, 숙면공학의 결합체인 셈이다.

바나듐(Vanadium), 원소기호 V, 원자번호 23.

항공 분야에서도 사용하는 바나듐은 강철·합금 강도와 온도 안정성을 높이는 등 유연성, 내구성이 우수해 고압, 고온 등 극한의 조건을 견디는 신소재다. 한 마디로 바나듐은 잘 늘어나고 잘 퍼지면서도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탄생한 시몬스는 1925년 당시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 기계 특허를 취득하며 대량 생산 토대를 만들었고 침대를 대중화 시킨 장본인이다. 1925년은 시몬스의 스테디셀러인 뷰티레스트(Beautyrest)가 세상에 나온 해이기도 하다.

한국 시몬스는 ‘10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제강·선제분야 두 기업과 협력해 스프링을 기존의 경강선보다 5배 정도 강한 바나듐으로 완벽하게 대체했다. 청출어람이다.

시몬스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 하루에 20만 번 이상, 총 1000만 번 이상의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스프링은 멀쩡했다.

수면 연구와 소재 기술을 담당하는 권오진 상무는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바나듐 포켓스프링은 중간 부분이 넓고 위아래는 좁아지는 항아리 형태로 설계했다. 항아리형 스프링은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간섭이 적어 장시간 사용해도 지지력과 내구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개별 스프링은 신체 구조, 무게 중심을 고려한 조닝 시스템, 50여 종의 프리미엄 내장재를 조합하는 레이어링 기술과 결합해 하나의 매트리스로 탄생한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지난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생산을 완전히 멈추기도 했다.

김동현 이사는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제조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품질에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쉼다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도 신뢰를 주고 만족할 만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시몬스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침대의 기준이 되는 ‘시몬스 스탠다드 5 (THE SIMMONS STANDARD 5)’도 새롭게 제시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는 바나듐 포켓스프링 ▲고품질 유지의 핵심인 양심적 품질관리 ▲작업자와 소비자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청결한 생산환경 ▲배송 혁신을 이끄는 자체 직배송 시스템 ▲구매 및 제품 설치 후에도 이어지는 빈틈없는 고객 케어가 포함돼 있다.

이종성 부사장은 “프리미엄 침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얼마나 촘촘하게 검증하며 고객 침실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다섯 가지 기준은 각각 독립된 기능이 아니라 소재 연구부터 고객 경험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시몬스의 통합 품질체계를 구성한다. 우리 ‘품질은 양심’이라는 원칙으로 침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경기)=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10곳 중 6곳 “납품대금 30일 내 지급 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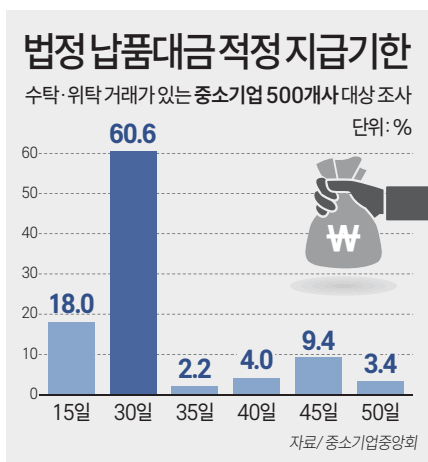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수탁·위탁 거래 설문조사
현행 법정 지급기한 60일의 절반
수탁기업 71% “단축 시 경영 도움”
절반 이상 자금 유동성 개선 기대

중소기업들은 일감을 주고 받는 기업끼리 오가는 납품대금 걱정 지급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감을 받는 수탁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면 자금 유동성 개선 등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현행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탁



·위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23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위탁 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수령했고, 위탁기업의 62.6%는 30일 이내 납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에 대한 답변으로는 ‘30일’이 60.6%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15일’ 18%, ‘45일’ 9.4%, ‘40일’ 4%, ‘50일’ 3.4% 순으로 나타났다. ‘30일’ 또는 ‘15일’이 전체 응답의 78.6%에 달했다.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할 경우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된다’가 71%로 많았다. ‘보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9.8%에 그쳤다.

지급기한을 줄이는 것이 경영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수탁기업이 꼽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금 유동성 개선(55.3%) ▲거래처 대금 원활한 지급(40.9%)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1.8%)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양찬희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용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한화, 美 방산시장 공략 본격화… 현지법인에 4150억 투입

한화디펜스USA에 2068억 추가 출자
K9MH 시제품 6문 美 육군 첫 계약
전략투자 법인에도 2082억원 투입

한화가 미국 방산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현지 자회사에 약 415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미 육군 자주포 사업 진입에 맞춰 지상방산 법인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전략투자 재원도 확충하며 현지 사업 기반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는 최근 한화

디펜스USA와 미국 전략자산 투자법인 한화퓨처프루프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참여하기로 했다. 두 법인에 투입되는 자금은 각각 1억4900만달러와 1억5000만달러로 총 2억9900만달러(약 4150억원)다.

미국 지상방산 사업을 맡는 한화디펜스USA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억4900만달러(약 2068억원)를 출자한다. 한 차례 출자액으로는 지금까지 한화디펜스USA에 투입한 누적 자금 1597억원보다 약 30% 많다.

지난 4월 출자한 약 921억원을 더하면 올해 한화디펜스USA에 투입하는 자금은 3000억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추가 투자는 한화디펜스USA가 미 육군의 기동전술포(Mobile Tactical Cannon·MTC) 사업에서 K9 계열 자주포 시제품 계약을 확보한 시점과 맞물린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19일 미 육군에 K9 차륜형 자주포(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다. 미 육군과 체결한 첫 대형 계약으로 기본 계약액은

1억30만달러(약 1417억원)다.

미 육군이 추가 12문에 대한 옵션을 모두 행사하면 공급 물량은 최대 18문, 계약 규모는 2억6200만달러(약 3715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현재는 양산 계약이 아닌 시제품 공급·시험 단계다. 미 육군은 장병 운용시험 등을 거쳐 향후 전력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지 사업 기반 구축도 병행하고 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펔라이카의 시설을 3년간 임차해 K9 계열 자주포의 현지 통합·시험 거점 구축에 나섰다.

/유혜은 기자 dhaledhal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제조 600명 채용

무로교육 거쳐 中企 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참여할 교육생 600명을 모집한다. 이와 별도로 재창업자 200명의 제도전도 돕는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청년 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스마트공장 운영·관리하는 현장 실무 인력(트랙1), 공정개선과 품질관리 등 제조AI 솔루션 개발 인력(트랙2)을 육성하는 과정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선발한 교육생에게는 1개월 내외의 스마트제조 관련 직무교육과 함께 훈련수당(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수료 후에는 스마트제조 분야 중소기업에 매칭돼 최대 3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이후 정규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생의 역량과 희망직무 등을 고려해 잡매칭 데이, 기업 설명회 등 다수의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전경.

23th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2026 KEPIC-Week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 강원관광재단

“AI 골든타임 잡아라”… 카카오, 인적분할·카톡으로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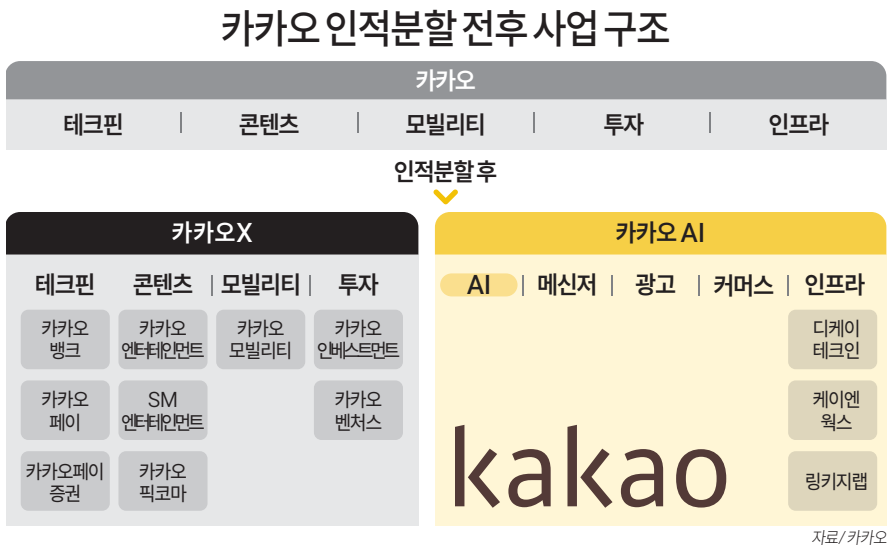
카카오AI·카카오X 인적분할 결정
본체를 AI 중심 사업회사로 재편
카카오AI, 분할 때 2.3조 현금 확보

카톡 대화 기반 외부 서비스 연결
에이전트 광고·구독 새 수익원으로
네이버와의 경쟁 영역 확장 전망

카카오가 회사를 둘로 쪼개면서까지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AI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의 85%가 자회사 관련 사안에 집중되면서 B2C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영자원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법인 카카오AI와 존속법인 카카오X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AI는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X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각각 이끌 예정이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X 63.5%, 카카오AI 36.5%다. 기존 주주는 보유 지분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받는다. 2021년 SK텔레콤이 통신사업회사 SK텔레콤과 투자회사 SK스



퀘어로 인적분할한 것과 유사한 구조다.

오는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한다. 이후 거래정지 기간을 거쳐 1월 27일 카카오AI는 상장장되고 카카오X는 변경상장될 예정이다.

◆“지금 놓치면 안 된다”…자회사 관리서 AI로

카카오가 내세운 분할의 명분은 복합기업 할인 해소다. 국내외 증권사가 평가한 카카오 개별 사업가치의 합은 34조 2000억 원이지만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은 16조 8000억 원에 그친다.

하지만 카카오 경영진의 설명을 종합하면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의사결정 속

도를 높여야 한다는 내부 판단도 분할에 크게 작용했다.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회에서도 최근 1년간 안건 32건 가운데 84%가 자회사 관련 사안이었다.

분할 이후 카카오 본사의 카카오톡·맵·비즈니스·AI 등 대부분 사업부와 직원은 카카오AI로 이동한다. AI 사업 일부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카카오 본체를 AI 중심 사업회사로 재편하고 계열사 관리·투자 기능을 카카오X로 분리하는 구조다.

카카오X는 본체와 자회사를 합쳐 약 6조 4000억 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금융·콘텐츠·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글로벌 팬덤·로봇택시 등 신규 성장동

력을 발굴하고 2030년 주요 사업 매출 10조 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2.3조 신탁 된 카카오AI…‘카톡’으로 승부

카카오AI는 분할 시점 약 2조 30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한다. 올해 기준 연간 약 7000억 원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창출력도 갖춰 AI 투자를 자체 현금흐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승부처는 카카오톡이다. 5000만 이용자의 관계와 대화 맥락을 AI가 이해한 뒤 광고·커머스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실제 실행까지 이어지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정 대표는 현재 카카오톡에서 매일 능동적으로 대화하는 이용자가 약 3000만명이라고 밝혔다. 카나나 인카오톡의 월간 활성이용자 대비 일간활성이용자 비율은 60~70% 수준이며, AI 이용자의 카카오톡 체류시간도 비이용자보다 50% 이상 높다. 카카오는 이를 기반으로 2030년 AI 일간활성이용자 2000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수익화 전략도 구체적이다. 에이전트 광고·커머스와 구독을 새로운 매출원으로 육성해 2030년 AI 매출 1조 원 이상, 국내 검색광고 시장 점유율 5%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AI 전체 매출 목표는 6조 원 이상이다.

비용 부담은 온다바이스 기술로 낮춘

다. 이용자 요청의 절반가량을 기기 내부 경량 모델이 처리하고 복잡한 요청만 서버 AI로 보내 추론비용을 최대 90% 절감한다는 구상이다.

◆네이버 ‘검색 본진’까지…AI서 경계 무너진다

카카오가 검색광고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지목하면서 네이버와의 경쟁 영역도 넓어질 전망이다.

네이버는 검색에서 이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광고와 쇼핑·플레이스·예약·결제로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최근에는 AI 브리핑과 대화형 검색 AI 탭을 앞세워 기존 검색 경쟁력을 AI로 확장하고 있다.

AI 광고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에 따르면 AI 브리핑 광고는 기존 검색광고보다 클릭률과 클릭당 단가가 각각 30% 이상 높았고 구매 전환율은 3배 이상을 기록했다. AI 탭의 월간활성이용자도 1000만명을 넘어섰다.

네이버가 검색에서 포착한 이용자 의도를 쇼핑·플레이스와 예약·구매까지 연결한다면, 카카오는 검색창을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 대화와 관계에서 이용자의 맥락을 파악한다. 검색과 메신저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성장해온 두 회사가 AI를 매개로 같은 시장에서 맞붙는 셈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통신3사, Z세대 공략… 미래고객 확보 박차

KT, ‘트렌드 컨퍼런스’ 열어

SKT, ‘CX 캠퍼스 시즌 2’ 마무리
LG U+, 연초부터 ‘유쓰피릿’ 운영

통신 3사가 중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아우르는 Z세대와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브랜드 경험과 소비 형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적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23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대학생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KT는 ‘Y트렌드 컨퍼런스’를 열고, SK텔레콤은 ‘CX 캠퍼스 시즌2’를 마무리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부터 ‘유쓰피릿 17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핵심 고객층인 Z세대와 관계를 확장해 미래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 있다. Z세대는 통상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브랜드 경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만큼 가격, 혜택 등에 따라 가입

자 이탈이 쉬운 고객층으로 평가된다.

통신 3사는 이에 Z세대와 소통 창구를 서비스 평가와 홍보에 활용하는 수준에서 실제 마케팅 기획에 적용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KT는 대학생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를 통해 Z세대의 생활 양식을 담은 키워드를 발굴하고 이를 상품과 마케팅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콘텐츠를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기본인 ‘듣폴트’ 트렌드를 강조해 아이폰 17 마케팅에 활용했다.

SK텔레콤은 올해 처음 CX 캠퍼스를 열고 대학생들이 사내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교류하는 마케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CX 캠퍼스 시즌2에서 20대 로밍 확대와 플래그십 단말 마케팅 등 4가지 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LG유플러스는 20대 고객과 접점을 넓히는 창구로 ‘유쓰피릿’을 활용하고 있다. 20대 대상 브랜드로 내세운 ‘유쓰’를 통해 회사 고유의 경험을 강조하는게 특징이다.

당초 대학생 서포터즈는 고객 의견 수렴과 인재 발굴을 동시에 겨냥한 프로그램이었다. KT는 2003년 ‘모바일 퓨처리스트’를 시작했고, SK텔레콤도 2018년부터 ‘T트렌드’를 운영했다.

다만 최근 정규직 채용문이 좁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이 실무 경험을 우대하며 신입 사원의 정규 채용 기회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쓰피릿 모집 시 최종 선정자는 서류전형을 면제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최근 신규 채용 인원도 감소하는 추세다. 각사가 올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년 사이 SK텔레콤 신규 채용 인원(427명→301명)은 약 30% 감소했으며, LG유플러스는(752명→202명) 약 73% 급감했다.

KT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신규 채용 인원이 254명에서 561명으로 120% 급증했지만, 정작 정규직 고용은 1만 9026명에서 1만 4121명으로 약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선 기자 msjo@

KT, 서울 초등생 대상 ‘AI 미래 캠프’ 진행

AI 기술·윤리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KT는 서울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서울도봉경찰서와 지난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KT-서울시와 함께하는 AI 미래 캠프’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학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AI 기술, AI 윤리 등을 담은 5개 프로그램에 모두 순환 참가했다.

또한 KT가 운영하는 이동식 AI 체험 교육관 ‘AI 스테이션’에서 AI 기술과 윤리를 체험하고, 블록 코딩교육 ‘AICE 퓨처’에 참여해 인공지능의 원리를 익혔다.

이어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서 ‘생각하는 로봇과 질문하는 인간’ 전시 해설을 듣고, 로봇팔을 활용해 나만의 특별한 그림을 그려보는 ‘피카봇 미술관’을 체험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봉경찰서가 진행



지난 22일 KT가 운영하는 이동식 AI 체험 교육관 ‘KT AI 스테이션’에서 초등학생들이 서울도봉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디페이크 관련 체험 교육을 듣고 있다. /KT

하는 ‘AI 활용 범죄예방 교육’을 통해 일상 속 디지털 안전 수칙도 익혔다.

KT는 정부기관·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의 아이들에게 AI 교육 기회를 넓히는 등 ‘모두의 AI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AI 교육의 공신력을 높이고, 민간·공공·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AI 교육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조민선 기자

LG U+,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 성료

과기부 ‘전 국민 AI 경진대회’ 일환

LG유플러스는 유튜브와 함께 진행한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창작인재를 발굴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쇼츠영상 공모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국민 참여형 AI 대회 ‘전국

민 AI 경진대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진행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 경연은 두 부문으로 나뉜다.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를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심플리 부문’과 목소리를 주제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아트 부문’이다.

이번 경연과 함께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참여형 아트 플랫폼 ‘유플러스 일상

비밀상의틈’에서 오프라인 팝업 전시와 AI 에듀케이터 클래스를 함께 운영했다.

이는 생성형 AI 활용 제고와 AI 콘텐츠 제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행사 기간 3000명 이상이 방문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모 기간 중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 AI 에듀케이터 클래스에는 330여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다. 클래스는 초급부터 고급 과정까지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프롬프트 작성부터 실제 영상 제작까지 단계별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했다. /조민선 기자

파능스쿨, 강원대서 ‘AI 영상제작’ 특강

디자인 전공 수업 연계 3시간 과정

인공지능(AI) 아트 교육기업 파능스쿨은 자사 소속의 이지 강사가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특강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디자인 전공 수업과 연계된 3시간 과정으로 열렸으며 약 30명이 참여했다. AI로 이미지·영상·음악을 차례로 생성한 뒤 편집을 통해 짧은 영상 한 편을 완성하는 실습 중심 커리큘럼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지 강사는 이 특강을 “AI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AI 입문 속성반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짧은 뮤직비디오 등 결과물 일부는 온라인에 공유됐다.

실습 도구로는 파능스쿨이 자체 개발한 통합형 생성 AI 플랫폼 ‘파능AI’가 쓰였다. 이 강사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이미지·영상·음악·책 실습을 모두 할 수 있고, 한글 프롬프트로 진행이 가능해 입문자에게 가르치기 쉽다는 점을 파능AI 사용 이유로 들었다. /김보민 수습기자 kbm@

불닭으로 쌓은 현금 공간… 삼양식품, 자본 배분 ‘시험대’

상반기 누적 매출 1조4847억
해외 매출 6458억… 46.7% 늘어
배당금 늘었지만 환원 높지 않아
내년까지 중에 8개 생산라인 구축

반짝 유행인 줄만 알았던 ‘매운맛 먹기 챌린지’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불닭볶음면은 100여개국에 수출되며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K-푸드의 주류가 됐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을 선물 받고 눈물을 흘린 미국 소녀의 영상은 조회수 1억회를 넘었고, 증시에서는 가파른 성장세를 빚대 삼양식품을 ‘불닭반도체’, ‘면비디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양식품은 오리지널 불닭의 강한 매운맛을 유지하면서도 하바네로라임·스와이시·파라·푸앗퐁커리 등 지역별 입맛을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을 넓혔다.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과 미주가 각각 28%로 가장 높다. 불닭의 흥행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현지화와 유통망 확대에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얼마나 더 팔릴까’에서 ‘번 돈을 어디에 쓸까’로 이동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2분기 연결 매출은 770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762억원으로 46.7% 늘었고 영업이익률은 22.9%를 기록했다.

2분기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46.7% 증가하며 처음으로 6000억원을 넘어섰다. 미국 매출은 54.3%, 중국은 44.1%, 유럽은 61.0% 늘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조4847억원, 영업이익은 3533억원에 달했다.

주가는 지난해 9월 11일 장중 기록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시리즈.

52주 최고가 166만5000원에서는 17.96% 내려왔다. 하지만 21일 종가가 136만6000원으로 여전히 한 주 가격이 100만원을 웃돌고 시가총액도 약 10조원에 달한다. 높은 기업가치를 유지하려면 불닭의 성장뿐 아니라 늘어나는 현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현금 늘었지만 中공장·차입금 고려해야

6월 말 삼양식품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6306억원, 단기금융자산은 1187억원으로 함께 749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3712억원 증가한 규모다.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683억원으로 전년 동기 1292억원의 두 배를 넘어섰다.

다만 7493억원 전액을 여유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단기차입금 369억원, 유동성장기부채 2100억원, 장기차입금 3549억원을 합한 이자부 차입금은 6018억원이다. 상반기에는 약 1995억원의 회사채도 발행했다.

생산능력 확대에도 자금이 들어간다. 삼양식품은 상반기 유형자산 취득에 1033억원을 지출했다. 중국 저장성 자싱공장에는 약 2072억원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8개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국내 공장은 미국·유럽 등으로 돌려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증권가는 불닭의 성장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본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32.0%,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며 목표주가 180만원을 유지했다. 해외 판매법인에 쌓인 미판매 제품재고 약 415억원도 향후 매출로 인식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투자와 주주환원을 아우르는 자본배분 정책의 구체화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커진 배당금, 이익·주가 대비 환원은 아직

삼양식품은 올해 중간배당을 주당 3200원으로 결정했다. 2025년 중간배당 2200원보다 45.5% 늘었고 배당금 총액은 241억원이다. 2025년 연간 배당금도 주당 4800원으로 2024년보다 45.5% 증가했다.

배당금은 늘었지만 이익과 주가를 고려한 환원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 지난해 연결 배당성향은 9.2%였다. 회사는 안정



삼양식품이 지난해 미국에서 진행한 ‘불닭 카우치 타임’(Buldak Couch Time) 이벤트. 삼양식품은 미국 LA 내 대형 쇼핑몰인 ‘웨스트필드 센추리시티’에서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삼양식품

적인 잉여현금흐름을 확보할 때까지 배당성향을 9~11%로 유지하고 주당 배당금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종가 136만6000원에 지난해 연간 배당금 4800원을 적용한 배당수익률은 약 0.35%다. 반기보고서에 기재된 최근 3년 평균 배당수익률도 0.6%에 그친다. 배당 확대 계획은 있지만 주주환원 목적의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보유 자사주 7만4887주를 약 994억원에 전량 매각했다. 해당 물량 대부분은 2022년 ‘주주 가치 제고 및 임직원 경영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회사는 투자재원 확보와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처분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올해 3월 삼성전자·현대차·기아·한국금융지주에 총 24억원을 투자했다. 삼성전

자와 한국금융지주에서 이익을 냈지만 현대차와 기아에서는 합계 1억5667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이를 반영한 전체 평가·처분이익은 약 3억2750만원이다. 투자액은 현금과 단기금융자산의 0.3%로 배당 여력을 좌우할 규모는 아니다. 다만 지난해 자사주를 전량 매각한 뒤 추가 매입·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업 외 금융자산 운용에 나선 만큼, 일부 주주 사이에서는 늘어난 현금의 우선순위를 주주환원에 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불닭의 해외 성장성과 중국공장 투자는 삼양식품의 높은 기업가치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앞으로는 성장투자가 추가 이익으로 이어지는지와 함께 늘어난 현금을 설비투자 외 금융자산 운용, 주주환원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가 추가 재평가를 가를 전망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거래 반토막에도 코스피 ‘지수 착시’ 심화

거래대금 지난달보다 10조 이상 감소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지수 반등

코스피 거래대금이 올해 고점 대비 50% 가까이 둔화하며 시장의 활력이 크게 꺾였지만, 지수의 폭등락 장세는 오히려 찾아들지 않고 있다. 증시 상승을 이끌던 개인마저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수는 올랐어도 전체 상장 종목의 85%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지수 착시’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6조5314억원으로, 지난달이었던 7월(42조9928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올해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이 30조원을 하회한 것은 1월(27조560억원) 이후 처음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일

평균 거래대금이 50조원을 넘어섰던 5월·6월보다는 약 47% 급감한 수치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6월 고점(96.94)보다 낮아졌지만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높은 변동성은 같은 기대 수익에도 감수해야 할 위험을 키워 주요 투자자의 위험예산 확대를 제약한다”고 짚었다.

가장 큰 수급 변화를 보인 것은 개인 투자자다. 이들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5월 35조943억원, 6월 42조4005억원에 달했으나, 7월 들어 5조3715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8월에는 약 2조7474억원 수준에 그쳤다.

증시 전반의 유동성이 둔화한 가운데,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스피가 5500

선까지 주저앉았던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지수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지수 상승분의 66% 이상을 반도체 두 종목이 견인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3.9% 상승했으나, 코스피 상승률을 웃돈 종목은 전체의 15.0%(141개)에 불과했다. 상장 종목 10개 중 8개 이상(85%)이 지수 상승 폭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착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은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시장 방향성을 결정짓는다”며 “코스피 전체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순이익 비중은 70% 수준이고, 시가총액 비중은 50%, 거래대금 비중은 53%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거의 대부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예탁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첫 계약

국채통합계좌 하나로 보관·파이낸싱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와 ‘KSD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

2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

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 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과 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국내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과 이낸싱 거래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계약은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허정윤 기자

상품권 미끼로 계좌 빼앗는 보이스포싱

금감원 Q&A

“상품권 구매하면 대출 가능” 속여
통장·카드 넘겼다면 거래중지 요청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포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포싱 조직이 대출을 미끼로 확보한 계좌에 다른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은 뒤 상품권으로 세탁하는 신종 수법이 확인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거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카드 사용실적이 부족해 대출이 거절됐다면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면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대신 상품권을 사주겠다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돈을 직접 건네는 것이 아니라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확보된 계좌는 다른 보이스포싱 피해금을 받는 대표통장으로 악용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상품권 구매실적을 빌미로 대출을 유도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계좌를 확보한 사기범은 다른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대출을 제안합니다. 이후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이나 약정 위반이라며 원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압박합니다. 이때 상환 계좌로 앞서 확보한 개인 명의 계좌를 안내합니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수거·인출책은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 등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합니다. 상품권은 다시 현금화되고 가상자산으로 환전돼 해외 총책에게 전달됩니다. 피해금이 불과 몇 분 만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상품권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100% 보이포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위해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허정윤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폐기물 자원화·에너지 회수 ‘앞장’

폐기물 특성에 따라 전력 등 활용
지난해 2000만㎥ 바이오가스 생산
송병역 사장 “환경기초시설 기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에서 폐기물을 단순히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기물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매립가스는 전력으로, 음식물폐수는 바이오가스로, 하수슬러지(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는 복토재·고형연료로 각각 자원화하고 있다.

공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통계연감’을 발간했다. 작년 한 해에만 시간당 170GW(기가와트)가량의 전력을 생산하고 2000만㎥를 넘는 양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등 폐기물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회수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내 50MW(메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0MW 규모 매립가스 발전시설. (원형사진) 송병역 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와트)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에서 176.9GWh의 전력이 생산됐다. 지난 2001년 발전시설 가동 이후 누적 발전량이 5278GWh에 달한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전량 포집·회수해 발전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립가스를 적정

하게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수도 바이오가스로 전환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 공사는 하루 최대 1430㎥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27만

8555톤(t)의 음식물폐수를 처리해 2197만 ㎥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했다.

공사의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수도권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루 최대 500톤 처리할 수 있는 광역 자원화시설이다. 반입된 음폐수는 처리 과정을 거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슬러지 자원화시설의 건조 열원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해당 시설을 직영 운영하고 있다.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설비 개선과 공정 운영 최적화를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설비 개선과 운전조건 최적화를 통해 음폐수 6만6000t을 안정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단위 처리량당 슬러지 발생량이 16% 줄어드는 등 처리 효율을 높였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매립장 복토재와 고형연료로 자원화해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수슬러

지 21만501t을 처리해 매립장 복토재 2만 7269t과 고형연료 3만8131t을 생산했다. 이 가운데 복토재는 수도권매립지 내 매립시설에 직접 활용하고 고형연료는 외부에 공급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송병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폐기물은 처리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새로운 자원과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환자원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폐기물의 특성에 맞는 자원화과 에너지 회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가 자원순환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함께 실현하는 환경기초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에는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을 비롯해 매립가스 활용, 재생에너지 생산, 하수슬러지 자원화 등 자원순환 분야를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운영 전반에 관한 통계가 수록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해수부, 역대 최대규모 비축수산물 공급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2만
황종우 장관 “수급안정 대책 추진”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비축수산물 2만톤(t)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방출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수부는 성수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주요 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부담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품목별로 명태 1만5700t, 고등어 1500



부산 동구 소재 해수부 청사 /메트로신문DB

t, 오징어 1700t, 갈치 800t, 조기 200t, 마른멸치 100t을 공급한다. 특히 고등어 필

렛, 동태포, 통코다리 등 손질부담을 줄인 제품도 함께 공급해 소비자의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축 물량은 전국 주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온·오프라인 도매시장 등을 통해 공급된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 수산물을 공급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산물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기술교육대 ‘STEP’ 학습사례 공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이 제3회 ‘STEP’ 학습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 국민 대상의 온라인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STEP’ 콘텐츠 학습경험을 통한 업무역량 AI(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 취업 성공, 경력 개발 등의 성과 발굴을 위한 경연이다.

참가신청 기간은 8월24일부터 9월20일까지다. 공모전을 통해, STEP의 다양한 분야의 풍성한 온라인 콘텐츠 학습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일반 국민의 경험을 공유한다. 또 직업훈련 학습 문화의 조성도 도모한다.

수상작은 고용노동부 장관상(1점), 한기대 총장상(2점), 온평원 원장상(5점) 등 총 8점을 선정하며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STEP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콘텐츠를 학습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연희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배움의 동기와 기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 역량 강화

관리자 890명 대상 전문교육 실시

고용노동부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노동감독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계에 대비해, 관리자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은 ▲신규감독관 배치 전 실무교육 강화 ▲재직감독관 수사전문성 제고 ▲중층적 수사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사건 기록 검토 및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및 사후 코칭을 전담할 예정이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 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또한 검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해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을 초기부터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한다.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추진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 전원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소규모 토론회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수사지휘 사례를 토대로 수사 방향 설정부터 증거검토, 공소유지까지 단계별 보완점을 짚는다. 또 관서별 과장·팀장 정례 간담회를 통해 수사·코칭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관서별로 검찰 및 경찰과의 협업체를 구성한다. 아울러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와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감독관의 수사교육을 전담하는 ‘노동수사교육원’(가칭)의 설립도 추진한다. 노동수사교육원은 독자적 수사권 행사에 필요한 수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농업 디지털 기술, UN 공식 시스템 탑재

농진청 UNCCD서 농업기술 선포

한국이 개발한 ‘농업지역 가뭄·홍수 위험 분석 플랫폼’이 유엔(UN) 공식 시스템에 탑재된다. 이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과 재해 위험 등을 예측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7)’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가뭄·홍수 대응 농업기술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총회 기간 공식 부대행사를 열고 미국 텍사스 A&M대와 공동 개발한 홍수·가뭄 영향 정보 플랫폼 ‘와이즈(WISE)’를 각국 대표단에 소개했다. 와이즈는 ‘물·영양·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각국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는 플랫폼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지역의 물 이용 여건과 가뭄·홍수 위험도를 분석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부대행사에서는 전산민 농진청 국립농

업과학원 박사가 플랫폼 개발 과정 및 서비스 현황을 발표했다. 정재학 텍사스 A&M대 교수는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시연했다. 또 미국 네브래스카대와 태국 아시아공과대, 환경국립대 전문가들이 와이즈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활용 방안, 국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와이즈를 UNCCD의 온라인 ‘가뭄도구상자(drought toolbox)’에 공식 등록·탑재할 예정이다. 가뭄 관리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취약성 평가, 위험 완화 정책 등에 한국의 농업 데이터와 분석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총회 행사장 내 ‘징원 이니셔티브 파빌리온’ 홍보관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 연구 성과와 국제협력 활동도 소개했다.

최광호 농진청 기술협력국장은 “한국이 선도한 디지털 농업 기후기술이 유엔 공공 플랫폼을 거쳐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표준 대응체계로 거듭났다”며 “K-농업기술이 세계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치유’ 산업화 방안 모색

‘해양치유 국제 심포지엄’ 성료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국립한국해양대(KMOU), 한국치유협회(KT A), 프랑스 탈타소협회(FTA)와 함께 ‘2026 해양치유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일 이틀간 KIOST 부산 본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국과 프랑스, 일본,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치유’의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양치유산업 발전 방향 및 국제 협력기반 마련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김충곤 KIOST 전문연구위원(기후대응·생태연구부)과 마리 페레즈 시스템 카 FTA 회장을 비롯해 경남대학교, 일본 오키나와 TAPIC 탈타소센터, 중국 하난

의과대학교 등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국내 해양치유 산업 현황 발표에 이어 프랑스·일본의 센터 운영 사례와 국내 사례, 중국의 치유 정책 등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KIOST는 해양치유 자원의 효능을 검증하고 안전성과 표준화 연구를 수행해 왔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 앞서 지난 20일 오전에는 KIOST와 KMOU·KTA·FTA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해양치유 자원 발굴과 효능 분석, 해양치유 프로그램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2026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모집 개요

과정명: 차세대 AI·디지털 트윈 실무 인재 양성과정 1기
교육기간: 2026년 8월 31일 ~ 2027년 3월 04일
교육시간: 월~금, 09:00 ~ 18:00
교육장소: AI-CLOUD-DATA 연계플랫폼 평생교육원
교육원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메타빌드 제2사옥 4층
상담 문의: 010-5155-8299

지원 자격 및 혜택

학력·전공 무관! 비전공자 및 인문계열도 기초부터 입문 가능
우대 사항: Python, Java 등 프로그래밍 기초 수강생 우대
추천 대상: IT/빅데이터/AI/ITS/데이터엔지니어 직무 취업 희망자
교육비 혜택: 총 수강료 40만원(훈련장려금 매달 수령 가능)

주요 교육 내용

총 1,000시간 중심의 실무 및 프로젝트 교육

AI 서비스 연계기술(ESB/API/MCP/A2A), Node.js/Express 기반 웹 응용
Python/JAVA/바이트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RESTful API 설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베이스 및 GIS 기반 데이터 처리
생성형 AI·GPT·LLM 실무 교육, 디지털트윈 서비스 구현 등

신청 및 문의

신청방법: 메타빌드 AI-클라우드-데이터 연계플랫폼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신청
* 산대특 4기 - 홈페이지 신청 (QR코드 연계)



수업과정
상세보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충남, 유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 외자유치·AI 허브 승부수

박수현 지사, 독일·이탈리아 순방
민선 9기 첫 글로벌 투자협약 추진
배터리 W사 당진 생산라인 신설
교황청과 세계청년대회 협력 확대
레오 14세 교황 충남 방문 요청

충남도가 민선 9기 첫 외자유치와 세계청년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교황청과의 협력 확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충남' 실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 독일과 이탈리아를 방문해 투자 유치와 세계청년대회, UN AI 허브 협력 등 충남의 미래를 위한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지난 22일 독일로 출국해 23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재독 충청향우회와 간담회를 갖고, 24일에는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유럽 시장 진출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2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이탈리아 국외출장 계획과 외자유치, 교황청·UN AI 허브 협력 구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확대와 충남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 독일 대표 산업도시 루트비히스하펜의 바스프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도내 투자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추가 투자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25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외자유치 협약과 외국인 기업 간담회, 충남 수출상담회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외자유치 협약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W사가 당진 송산외국인투자지역에 배터리팩 제조라인을 신규 설치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번 투자가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지사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화학 분야 등 충남에 투자한 유럽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 투자 가능성을 모색한다. 수출상담회에서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살핀다.

독일 일정을 마친 뒤 로마로 이동해 26일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다. 유홍식 추기경 등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해마국제성지를 비롯한 충남의 천주교 문화유산을 알리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방안을 논의하고 레오 14세 교황의 충남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도 전달할 예정이다.

27일에는 로마의 유엔 AI 허브를 찾아 국제사회의 AI 정책과 글로벌 협력 동향을 공유하고 충남이 추진 중인 '대한민국 AI 수도' 구상을 설명한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UN AI 허브의 충남 유치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의료·교육·돌봄·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이후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로 이동해 28일 마켈레 데 파스칼레 에밀리아로마냐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의 산업·경제적 강점을 공유하고 경제·산업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metroseoul.co.kr



방학에도 경계선 지능·난독 지원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125명 치료
전문 치료사가 직접 찾아 20회 진행

경북교육청은 경계선 지능과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초등학교 125명을 대상으로 '2026 찾아가는 경계선 지능 및 난독 치료 지원 사업'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학생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학생과 전문 위탁기관 간 매칭을 마치고 경계선 지능과 난독 여부, 학습 어려움의 원인과 정도 등을 진단해 학생별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문 치료기관의 치료사가 학생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학생별 총 20회기의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학생과 보호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과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 지원을 계속한다.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학교와 가정,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학습·치료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와 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배움은 방학이라고 멈추지 않으며 기초학력 지원 역시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어려움을 살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하고 방학 중에도 학습안 전망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현 기자 kih9@

경주, 외국인 관광객 19% 늘었다

APEC 개최효과 국제 인지도 상승
중 16.5% 최다, 대만·일본 뒤이어

경주시는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이 70만7,197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0%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59만4,502명보다 11만2,695명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해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심이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방문객이 늘었으며, 증가율은 5월 34.0%, 4월 22.1%, 6월 21.7%, 2월 20.5% 순이었다.

월별 방문객은 1월 6만5,687명, 2월 6

만7,822명, 3월 11만1,230명, 4월 16만2,605명, 5월 16만2,013명, 6월 13만7,840명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이 16.5%로 가장 높았고 대만 9.3%, 일본 6.4%, 미국 6.1%, 필리핀 4.5% 순으로 나타났다. 홍콩과 베트남은 각각 4.0%, 인도네시아 3.9%, 러시아 3.8%로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권이 60.0%, 유럽권 10.5%, 미주권 8.7%였다.

경주시는 국가별 관광시장 특성에 맞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효과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해외 관광시장 공략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김진민 기자 jingon@

창원, '청정에너지 수도' 도약 박차

산단 태양광·EMS 구축 본격화

창원시가 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활용하는 '청정에너지 수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RE100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제조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서도 재생 에너지 확보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봉암공단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 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공모를 통해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2026~2029년 10MW 이상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을 구축할 계획이다.

입주 기업에는 에너지 진단과 탄소저감 컨설팅을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기업

과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햇빛소득' 모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수곡·창곡일반산업단지는 공장 지붕 발전 사업을 허용하고, 안골·죽곡2 산업단지와 해양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조성 단계부터 태양광 설비를 반영한다.

시는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략조정실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제도 개선과 신규 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 육성 범위도 소형 모듈 원자로(SMR)와 수소로 넓힌다. 원전 관련 기업 약 150곳이 모인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해 SMR 관련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략도 마련할 방침이다. 진해신항은 '수소에너지항'으로 육성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근현대역사관서 즐기는 야외영화

29일 야외광장서 문화행사
'스즈메의 문단속' 야외 상영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앞 야외 광장에서 무료 문화 체험 프로그램 '주파수 0829: CINEMA NIGHT'를 개최한다.

행사가 열리는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은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공간이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 예술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행사 모델을 만드는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같은 시간대 플리마켓이 함께 열린다. 지역 셀러들이 참여해 ▲액세서리 ▲캔들 ▲비누 ▲패브릭 ▲가죽 공예 등 핸드메이드 제품과 ▲일러스트 ▲굿즈 ▲스티커 ▲엽서 등 디자인

·아트 상품을 선보인다.

▲타로 ▲사주 ▲운세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형 콘텐츠도 마련되며 완제품 식품과 디저트, 빈티지 의류와 소품, 식물 등도 판매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야외 영화 상영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영화의전당과 협업체 준비한 상영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으로, 국내에는 2023년 3월 개봉해 관객을 모은 작품이다. 관람객은 역사관 야외 광장에서 여름밤 정취를 느끼며 영화를 즐길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와 문화, 여유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름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지역 이모저모

경남도

고성 등 여행비 절반 환급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하반기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고성군, 산청군, 함양군 3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현지에서 쓴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다. 관광객의 방문과 소비를 늘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한도는 2인 이상 팀 여행 시 최대 20만원, 개인 여행 시 최대 10만원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여수시

COP33 남중권 유치 영상 공모

여수시가 COP33을 둘러싼 국민 참여형 영상 캠페인을 시작한다. 짧은 영상에 개최지 유치 메시지와 지역의 특색을 담아 남해안 남중권의 존재감을 알리고 기후행동에 대한 관심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기원 UCC(영상) 공모전'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데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해안 남중권을 개최 후보지로 선정짓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넓히는 데 의미를 뒀다. /여수(전남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사천시

27일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사천시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과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앞 노을광장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연다. 헌혈문화 확산과 혈액 수급 안정화가 목적이다. 사천시보건소는 지역 주민이 생명나눔과 사랑의 실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혈액 보유량은 통상 5일분 이상이면 적정 단계로 분류되며 5일분 미만은 관심, 3일분 미만은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 단계로 나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료 환경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하동군

1인당 민생지원금 30만원 지급

하동군이 지속되는 고유가·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하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며 2026년 8월 7일 기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 대상이다.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도 포함된다. 앞서 하동군의회는 지난 8월 5일 관련 조례와 예산을 의결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류 하동사랑상품권 70억원과 모바일 상품권 50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12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커피시장 ‘가성비·접근성’ 지형 재편… 메가커피 왕좌 올라

고물가 장기화·음료배달 일상화
저가 프랜차이즈 중심 외형성장
출혈경쟁 등 수익성 악화 ‘그늘’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 시장의 ‘왕좌’가 바뀌었다. 부동의 1위를 지켜오던 스타벅스가 주춤한 사이, 2000원대 아메리카노를 앞세운 메가커피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프랜차이즈 카페 1위에 올라섰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가성비 중심의 소비 구조 고착화, 배달 앱을 통한 카페 음료 주문의 일상화 등이 맞물리며 국내 커피·음료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리서치테크기업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카페 트렌드 리포트 2026’ (조사기간 2026년 7월 25일~27일, 전국 만 20~59세 남녀 2000명 대상)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이용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중복응답) 조사에서 메가커피가 71.0%의 이용률을 기록하며 스타벅스(69.2%)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메가커피의 이용률은 전년 대비 5.0% 포인트(p) 증가했으나, 스타벅스는 전년



서울 시내 한 상가에 카페들이 밀집해 있는 모습.

/뉴시스

대비 12.5%p 급락했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주이용 브랜드(1순위)’ 기준에서도 메가커피는 31.9%전년 대비 4.9%p 상승하며 스타벅스(26.1%)를 넘어섰다. 컴포즈커피(14.5%)와 투썸플레이스(7.7%)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메가커피는 월평균 이용 횟수에서도 7.02회를 기록해 스타벅스(5.30회)를 압도했다.

시장 재편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카페

배달의 일상화’다. 조사 대상자 10명 중 6명 이상(63.9%)이 최근 1개월 내 카페 음료 배달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 주문자(791명) 중 35.4%는 전년보다 카페 배달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다. 이용이 늘어난 이유로는 ‘매장 직접 방문의 귀찮음(50.7%)’, ‘배달 가능 카페 증가(41.1%)’, ‘집·회사에서 편하게 즐기는 습관(37.1%)’ 등이 꼽혔다.

배달 주문 시에도 소형·저가 커피 프랜

차이즈 이용 비중이 69.4%로 가장 높았다. 선택 기준 역시 브랜드 인지도(12.8%)보다는 맛(43.6%), 메뉴 가격(39.2%), 최소주문금액(32.2%), 배달비(30.5%) 등 실용적인 가성비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외형 성장 뒤에는 가맹점 수익성 악화와 본사-가맹점 간 분쟁이라는 ‘양적 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저가 커피 매장 수가 1만 개를 넘어서며 상권 포화상태에 도달하자 신규 출점 동력이 떨어진 본사가 원부자재 납품 중심의 종속 구조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메가커피 운영사의 영업이익률은 21.7%로 업계 1위 스타벅스(6.1%)의 3.5배에 달한다. 전체 매출 4960억 원 중 4672억 원이 가맹점 원부자재 납품(상품 매출)에서 나오는 구조다. 소비자 가격 중 원두 원가 비중은 12~13%(111원 안팎)에 불과하지만, 원두값 상승을 명목으로 단행된 가격 인상이 본사 마진 방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5년 치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

까지 제기한 상태다.

치열한 출혈경쟁 속 스타 마케팅 비용 전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컴포즈커피가 BTS 뷔와의 재계약을 추진하며 총 73억5000만 원 규모 광고비 중 40%(29억4000만 원)를 가맹점주에게 분담시키기로 하자, 점주들 사이에서는 “아메리카노를 수십 잔 더 팔아야 매달 내야 하는 광고비 8만 원을 채운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한계에 다다른 음료 마진을 매우기 위해 김치볶음밥, 베이커리 등 디저트 및 PB 식사료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며 점포당 객단가를 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커피를 선택할 때 브랜드 프리미엄보다는 실질적인 가성비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이미 포화된 카페 시장에서 무조건적인 외형 성장만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본사와 가맹점의 상생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풀무원푸드머스, 저소득층 영유아 챙긴다

인천 서해구청 등 3개 기관 업무협약
영유아 가정 식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풀무원푸드머스가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서해구 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간식 지원에 나선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1일 인천시 서해구청에서 3개 기관이 ‘영양 드림’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구재용 서해구청장, 문현기 풀무원푸드머스 영업본부장, 김진아 서해구 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양 드림’은 서해구 내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에게 매월 3만원 상당의 간식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가 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서해구청이 대상자를 풀무원푸드머스와 연계하고, 풀무원푸드머스는 지역 가맹점과 협의해 간식 꾸러미를 전달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21일 인천시 서해구청에서 열린 ‘영양 드림’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풀무원푸드머스 문현기 영업본부장과 인천광역시 구재용 서해구청장, 서해구 정부지원어린이집 연합회 김진아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푸드머스

풀무원푸드머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영유아 가정에 대한 식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인천 계양구청, 계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저소득층 영유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 드림’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풀무원푸드머스 문현기 영업본부장은 “지역사회 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건강한 성장 발달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들을 지속 확대하며 국내 키즈 식자재 대표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익콧쟁의 여름여행’ 팝업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는 9월 10일까지 센텀시티몰 지하 1층 팝업행사장에서 인기 캐릭터 ‘익명이·깨꼭이·올쟁이’를 활용한 ‘익콧쟁의 여름여행’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여행 온 익명이·깨꼭이·올쟁이와 함께 여름을 즐긴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여름방학 막바지 학생과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캐릭터 굿즈와 이벤트, 부산 한정 상품 등을 선보인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진행한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라부작가사인 엽서와 경품 추첨권 등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치킨·한우·면 등 ‘취향 보양’ 트렌드 확산

다이닝브랜드그룹 bhc 등 복날 매출 ↑

개인의 취향대로 몸보신을 즐기는 ‘취향 보양’ 트렌드가 확산하며 정형화된 복날 보양식 공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이닝브랜드그룹은 올여름 삼복 기간 치킨, 한우, 면 요리 등 다채로운 메뉴로 전 브랜드에서 매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치킨 브랜드 bhc는 초복 당일 주문량이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150.1% 급증했다. 중복과 말복에도 각각 75%,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뿌링클’, ‘좌식킹’, ‘후라이드’가 복날 최대 판매 메뉴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좌식킹’은 초복 당일 판매량이

일평균 대비 82%로 늘었다.

한우 다이닝 브랜드 창고43 역시 한우 구이와 계절 메뉴가 고른 실적을 냈다. ‘갯순이 들개 갈비탕’과 ‘차돌박이 밀쌈’ 등 여름 특화 메뉴의 초·중복 합산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메인 구이 메뉴인 ‘500시간 숙성 채갈’도 7월 판매량이 전월보다 10% 이상 뛰었다.

큰맘할매순대국은 ‘누룽지 녹두 삼계탕’과 ‘조계철면’ 등 계절 특화 메뉴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결과 지난달 전체 매출 중 계절 메뉴·면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5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정 수습기자

아웃백, 5060세대 멤버십 회원 급증

구매력 갖춘 ‘액티브 시니어’ 큰 손 부상

구매력을 갖춘 ‘액티브 시니어’가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의 새로운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이닝브랜드그룹은 최근 1년 반(2025년 1월~2026년 6월 15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5060세대 신규 멤버십 회원이 약 14만 6000 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신규 회원의 증가율은 60대가 32.7%, 50대가 29.5%를 기록하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아웃백 매장을 찾은 5060세대 고객은 15만 2000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 재방문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5060세대가 3040세대의 뒤를 이었다.

이런 증가세의 배경에는 세대별 소비 성향 변화가 있다. 외식업계에서는 1990~2000년대 20~30대 시절, 아웃백에서

처음 스테이크를 접했던 세대가 50·60대가 되며 스테이크 다이닝을 낯선 메뉴가 아닌 익숙한 외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평일 낮 시간대 이용도 두드러졌다. 5060 방문객 4명 중 1명은 평일 점심시간에 매장을 찾아 모임이나 외식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넓은 테이블 구조와 넉넉한 좌석 배치, 저녁 8시 이후 제공되는 풀키지 프리 서비스도 모임 장소를 찾는 시니어 고객의 수요와 맞물렸다는 평가다.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관계자는 “최근 외식 시장에서 자신의 취향과 경험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매장 접근성과 모임에 최적화된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세대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이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롯데마트제타, 식품·생필품 등 50% 할인

롯데마트의 온라인 플랫폼 ‘롯데마트 제타(ZETTA)’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월간제타’를 열고 주요 신선식품과 생필품 등 300여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여기에 더해 신규 고객을 위한 특가 상품을 비롯해 할인 혜택과 상품군별 할인, 브랜드별 구매 혜택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먼저 롯데마트 제타 신규 고객 대상으로 ‘서울유유 체다슬라이스치즈기획(270g*2)’, ‘오늘좋은 숨결통식빵(400g)’, ‘오늘좋은 둘타슈(120매)’ 등 먹거리와 생필품 300여 품목에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인기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오리하다양념육 전품목’에 대해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최대 30% 할인 판매하며, 간식

이나 술안주로 활용하기 좋은 ‘차킨&튀김 냉동식품’ 9종에 대해 원플러스원(1+1) 행사를 진행한다. ‘캠벨포도(1.5kg/박스)’와 ‘이삭한복송아(4~7입/박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할인쿠폰 20%를 적용해 선보인다. ‘좋은느낌 오리지널 수파통(20매)’, ‘화이트수파흡수 맥시슬림 대형’ 등 생리대 43종도 1+1 혜택으로 구매할 수 있다.

주요 브랜드와 연계한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구독형 배송 서비스 ‘제타패스’ 회원 대상으로 ‘오푸기’ 행사 상품 3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동원’과 ‘동서식품’은 각각 행사 상품 4만원, 4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5천원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경산업’은 행사 상품 2만 5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맥주에 물 좀 들어가면 어때”... 폭우 뚫고 2만명 ‘짠’

Q 르포

‘카스쿨 페스티벌’ 가보니

곳은 날씨에도 2만여명 관객 운집
워터슬라이드 등 체험 공간 운영
3개 무대에서 다채로운 음악 공연

“비요? 맥주에 물 좀 섞이는 거 말고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서울랜드. 우산과 우비를 쓴 방문객들은 빗속에서도 연신 맥주잔을 부딪쳤다. 빗방울이 맥주잔 위로 튀어 오르고 현장을 가득 채운 관람객들의 얼굴에는 축제를 즐기는 설렘이 가득했다.

지난 22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2026 카스쿨 페스티벌’이 열렸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오비맥주의 대표 여름 축제 카스쿨은 시작부터 폭우라는 변수를 맞았지만, 열기만큼은 꺾이지 않았다.

티켓 2000장이 오픈 45초 만에 완판되며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했던 만큼, 이날 현장에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인원인 2만여명이 몰렸다.



지난 22일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에서 ‘2026 카스쿨 페스티벌’이 열렸다. 사진은 비가 그친 오후 6시경 ‘2026 카스쿨 페스티벌’ 메인 무대 앞으로 모여들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 /김수정 수습기자

◆워터 슬라이드·헤메 스타일링 ‘다채’
내리는 비에도 체험 부스에는 대기줄이 이어졌다. 젠틀몬스터 공간 디자이너 출신 안도현 대표와 협업해 세운 모듈러 부스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대형 워터슬라이드 ‘카스쿨 라이트’ ▲DIY 고글과 티셔츠를 만드는 ‘스웨그십’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스타일링 라운지’ ▲대형 워터슬라이드 ‘카스쿨 라이트’ ▲텐텐 오락실’까지 다양한 부스를 마련했다. 스타일링 라운지에서 만난 박진영

(26.여)씨는 비 때문에 머리가 젖어 헤어·메이크업 부스를 방문했다. 그는 “페스티벌 분위기에 어울리는 머리를 하고 나니 날씨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F&B 존은 Naver X EasyQR 연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방문객들은 QR 주문 후 줄을 서지 않고도 빠르게 메뉴를 받았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곳은 단연 맥주 픽업 존이었다. 맥주 픽업 존은 주문 즉시 추출하는 ‘초신선 카스생맥주’와 카스쿨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이언트 버킷’이 인기를 끌었다. 관람객들은 푸드

트럭의 맛있는 먹거리와 초신선 맥주를 들고 다니며 축제를 즐겼다.

◆3색 스테이지, 무대 감상도 ‘취향껏’
하루 종일 내리던 빗줄기는 오후 6시가 되자 잦아들었다. 비구름이 지나간 하늘에 무지개가 떠오르며 낭만 있는 페스티벌 분위기를 자아냈다.

뮤직 페스티벌은 총 3개 무대로 운영했다. 메인 무대인 ‘프레스 스테이지’는 대규모 워터 시스템과 K-POP 공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몬스타엑스 ▲하이라이트 ▲효리수 ▲이창섭 ▲산다리바 ▲루시

등이 무대를 꾸몄다.

삼천리 대극장에 마련된 ‘레몬 스테이지’는 터치드, 소수빈, 루시, 드래곤포니 등 실력과 밴드와 아티스트들이 노을빛으로 물든 하늘과 어우러진 감성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제로스테이지’는 지구별 무대에서 펼쳐졌다. 이곳에서는 DJ들의 논스톱 EDM 디제잉 파티가 현장을 달궜다.

친구와 함께 카스쿨을 방문한 송규섭(40.남)씨는 “맥주에 물이 들어가긴 하지만 비 와도 상관없다”며 웃어 보였다. 무대를 보며 물총 쏘는 재미에 빠졌다는 그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물총을 쏘며 장난치다 보면 금세 친해진다”며 “그 재미로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가 오고 그치기를 반복한 곳은 날씨에도 관객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이날 행사는 오후 10시경까지 이어졌다.

카스 관계자는 “음악과 워터쇼, 초신선 생맥주가 어우러진 카스만의 시원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음악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결합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HLB, CAR-T·CDMO로 바이오 사업 확장

(위탁개발생산)

리라푸그라티닙 FDA 승인 임박 그룹 차원 바이오 가치사슬 구축

HLB그룹이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미국 식품의약품(FDA) 허가 승인 결정을 한 달 앞두고 있다. HLB그룹은 신약파이프라인으로 연구개발 저력을 입증하는 한편, 차세대 CAR-T 치료제 플랫폼 확장, 원료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해외 진출 등 그룹 내 바이오 사업을 넓혀 전사적인 가치사슬 구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HLB는 우선 ‘리라푸그라티닙’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리라푸그라티닙’의 담관암 2차 치료제 허가를 위한 후반부 심사 협의(레이트 사이클 미팅)를 특이사항 없이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판 후 이행 약속(PMC), 시판 후 의무사항(PMR)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HLB에 따르면 이번 미팅에서 FDA 측의 추가 지적 사항이나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제조 시설 관련 논의 역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캐나다와 미국에 위치한 해당 생산 시설들이 이미 지난해 FDA 일반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실시를 통과한 바 있어 규제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25일(현지 시간) 내 발표될 예정이다.

HLB그룹은 단일 파이프라인의 결실을 넘어 ‘암종 불문’ R&D 역량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리라푸그라티닙은 2022년 FDA 허가의약품, 2023년 혁신치료제에 이어 올해 신약허가신청(ND A)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또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 이슈 등을 보완하는 등 재신청 절차를 밟고 있어 두 개의 핵심 항암 축이 연이어 글로벌 상업화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HLB그룹은 바이오 플랫폼 기술력과 생산 부문에서도 신성장동력을 확보했다.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 모 테라퓨틱스의 경우, 독자적인 CAR-T 치료제 플랫폼 ‘KIR-CAR’를 고형암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다. 암세포 표면에만 발현하는 클라우딘6(CLDN6)을 추적해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높이는 차세대 면역치료제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또 기존 고형암 치료제 ‘SynKIR-110’과 혈액암 치료제 ‘SynKIR-310’이 각각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HLB랩은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원료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일본,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로 진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미국에서는 자사 품목을 FDA 원료의약품목록에 등록하는 등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HLB그룹은 이달 들어 그룹 미래 비전을 담은 ‘HLBWAY’를 새롭게 정립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종근당, 망막질환 신약 국내 관련 확보

희귀질환 공략 강화

종근당이 희귀 질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종근당은 미국 안과질환 전문 제약사 키오라 파마슈티컬스와 망막질환 신약 후보물질 ‘KIO-301’의 국내 안과 적응증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종근당이 KIO-301 국내 개발, 허가, 상업화를 담당하고 키오라는 향후 개발 및 허가 등 단계별 마일스톤과 국내 판매 로열티를 받는다.

KIO-301은 우선 ‘망막색소변성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 저분자 물질이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빛을 감지하는 광수용체가 점차 퇴행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KIO-301의 경우 광수용체가 퇴행한 후에도 남아 있는 망막신경절세포에 광감지 기능을 부여하도록 설계됐다. 특정 유



종근당 김영주 대표(왼쪽)와 키오라 파마슈티컬스 브라이언 M. /종근당

전자 변이와 관계없이 작용하는 기전을 갖춰 향후 맥락파위축증, 스타가르트병 등 다른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도 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이 축적해 온 안과 분야의 전문성과 임상·허가 역량을 바탕으로 키오라 및 글로벌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드라운드, 배우 임윤아와 가을 패션 제안

편안하고 세련된 이미지 연출

드라운드가 배우 임윤아와 여유로운 일상의 순간을 담아낸 가을 컬렉션을 선보인다.

하고하우스는 드라운드가 올가을 시즌부터 배우 임윤아를 브랜드 대표 모델로 기용했다고 23일 밝혔다.

드라운드는 임윤아의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가 일상의 감성을 담는다’는 브랜드 방향성과 어우러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을 컬렉션은 서재와 산책길 등 일상 공간을 배경으로 편안한 착장을 선보이는데 중점을 뒀다. 블라우스와 니트, 팬츠 등 기본 상품군에 가죽, 스웨이드,



2026 FALL 캠페인 모델 이미지. /하고하우스

코튼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외투 제품군을 강화했다. 배라인의 칼라와 포켓, 메탈 버튼 등 세부 디테일에 변화를 준 점이 특징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현대리바트, ‘리바트 영 챌린지’ 개최

2030세대 아이디어, 제품에 반영

현대리바트는 다음달 13일까지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리바트 영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2030세대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디자인과 마케팅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디자인 부문은 ‘1·2인 가구, 집의 공식을 바꾸다’를 주제로 가구·인테리어·오피스 등 3개 분야에서 제품 및 공간 디자인을 모집한다.

마케팅 부문은 ‘리바트에 젊은 생각을 제안하다’를 주제로 브랜드 전략·디지털 콘텐츠·브랜드 경험 등 3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획안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현대리바트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 ‘리바트 멤버스’ 회원이면 개인 또는 2인 이하 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취업 상태라도 총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체형형 인턴·단기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참여할 수 있다. 출품작은 다음달 13일 자정까지 공식 온라인몰 리바트

/김서현 기자 seoh@



HUFs

Where Global Insights Meet
AI Innovation

융합일본지역학부
서인호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김예희

AI를 활용하였습니다.

미래를 여는 한국외대의 트리플 시너지



글로벌캠퍼스 : 성장 엔진



서울캠퍼스 : 정체성 고도화



송도캠퍼스 : 국제화 플랫폼

송도캠퍼스 신설학부 모집

- 글로벌바이오 & 비즈니스융합학부
- 외국인자유전공학부

입학안내

02-2173-2500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GI서울보증,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 지원

SGI서울보증은 한국에너지공단,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지붕 태양광 보증보험료등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명준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오른쪽 첫번째), 최재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가운데), 이재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코웨이, 'IDEA디자인 어워드' 제품부문 2관왕

코웨이가 '2026 IDEA디자인 어워드' 제품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17년 연속 수상 영예를 안았다. 23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어워드에서 자사의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2종(38㎡·82㎡)과 '인버터 제습기 23L' (사진)가 2관왕을 달성했다. 두 제품 모두 지난 3월 IF 디자인 어워드, 4월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한 데 이어 이번 IDEA까지 석권하며 올해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휩쓰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코웨이



유한양행,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 제작

유한양행이 본사, 연구소 등에서 임직원 100명과 함께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상자'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나눔상자를 전달해 왔다. 올해는 서울 지역 1000명, 용인·청주 지역 400명 등을 방문한다. 수도권 밖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와 협력한 복약 지도, 건강 상담 등도 수행하고 있다. /유한양행



스타벅스, 하반기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 진행

스타벅스 코리아가 하반기 첫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일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가자 평균 연령은 65세다. /스타벅스



풀무원-강남구, 1인가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풀무원이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손잡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 본사에서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와 '1인가구 맞춤형 지속가능식생활 클래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풀무원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원

현대차 '차량 수리 할인', 삼성·LG '가전 점검' 나서

현대차, 수리 비용 최대 50% 할인 삼성·LG, 가전 무상 점검·수리

국내 기업들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성금 기탁은 물론 침수 차량과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 수리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경남 거제, 통영 등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성금 기탁과 함께 현대차그룹은 피해 지역에 세탁구호차량 3대를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를 돕는다.



현대차그룹이 경남 거제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투입한 세탁구호차량. /현대차그룹

수해 지역 차량 소유 고객의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 비용을 최대 50% 할인해주고 수리 완료 후에는 무상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할인금액은 현대차의 경우 승용

최대 300만원, 상용 최대 500만원이다. 기아는 승·상용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가전 업계도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와 LG전자서비스는

침수 가전제품 점검·수리를 무상 지원한다.

둔덕면사무소(삼성전자서비스)와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삼성전자서비스·LG전자서비스)에서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고가의 핵심 부품은 업체별 기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 수해 피해 현황을 분석해 '수해 복구 특별 서비스팀'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며, 현장 방문이 어려운 가정은 삼성전자서비스 또는 LG전자서비스 고객센터에 전화해 방문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오뚜기, 1000여개 구호물품 전달

거제실내체육관에 컵라면 등 지원

오뚜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오뚜기는 현장에서 간편하게 취식할 수 있는 컵라면, 컵밥 등 총 1000여 개의 구호물품을 거제실내체육관에 전달했다. 구호물품은 최근 이

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비롯한 구조작업에 투입된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오뚜기는 재난 발생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긴급 구호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의성·산청 지역에 컵라면



오뚜기 경남 거제 긴급 구호물품 지원 현장. /오뚜기

과 컵밥 등 총 1만여 개의 물품을 지원했으며, 7월에는 산청·가평·광주·

당진 등 수해 피해 지역에 컵라면·컵밥 등 4만여 개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거제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오뚜기의 이번 지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지역의 복구가 조속히 이뤄져 하루빨리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교원그룹, 지역아동센터 해외경험 제공

'교원감사나눔투어' 진행

교원그룹이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원감사나눔투어'를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23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교원감사나눔투어는 중국 상하이에서 20명씩 총 5회, 각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총 100명의 아동과 가족에게 해외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원감사나눔투어'는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이 창립 40주년을 계기로 기업의 성장에 대한 결실을 사회와 나누기 위해 초록우산과 함께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장평순 회장의 '평생인연' 가치를 바탕으로 교원그룹은 고객과 사회의 성장에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감사나눔투어 역시 이러한 사회공헌

방향 아래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가족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외 문화와 역사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그룹은 앞서 3회차까지 총 249명의 아동과 보호자에게 해외 문화와 역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4회차에는 100명이 추가로 참여해 누적 참여 인원이 총 349명에 이를 예정이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은 그룹 내 여행 계열사인 교원투어가 맡는다. 교원투어는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일정과 참가자 관리 등을 지원하며, 참여 아동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 21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SK플래닛 김상규 유닛장, 소진공 인태연 이사장, 태안군 윤희신 군수, 한국서부발전 이정복 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조소행 이사장, 하나은행 이동열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소진공-6개 기관, 태안 지역경제 살린다

태안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맞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민·관·공·금융 6개 기관이 충남 태안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21일 태안군청에서 태안군, 소진공, 충남신용보증재단, 한국서부발전, 하나은행, SK플래닛이 '태안군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 '충남지역 동반성장협의회' 활동 일환으로 추진, 태안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이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결합해 소비 촉진부터 금융지원, 디지털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까지 아우르는 지역 밀착형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소비진작 캠페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승호 기자

홈앤쇼핑,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권진미 대표, 릴레이 캠페인 동참

권진미 홈앤쇼핑 대표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23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공익 캠페인이

다. 불법도박 근절 메시지를 담은 인증 사진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진미 대표는 공영홈쇼핑 이일용 대표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함께하게 됐다. 다음 주자로는 KT알파 박정민 대표를 지명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중소벤처기업부○과장급 전보△글로벌성장정책과장 신재경 △정보화담당관 박보근 △중소기업제도과장 김진한 △기업구조개선과장 우창훈 △청년정책과장 이호중 △특구운영과장 남정령 △지역상권과장 임동우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장 백원현

부음 ▲김순례씨 별세, 안중호(팬오션 대표이사 사장)씨 병모상=23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특301호, 발인 25일, 051-636-4444

▲이이랑씨 별세, 백지원(정음시의회의회사무국장)씨 시부상=23일,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25일 오전 8시30분, 063-430-7070

“받을 돈과 통?”... ‘파산 부인권’엔 안 통해



박 규 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 재원이 될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최대한 회복시키려 한다. 이때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부인권’이다. 부인권은 ‘채무자가 파산 전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변제·담보를 제공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소급해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권리’다. 대상은 재산을 없애버리는 ‘사해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깨뜨리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또 편파(偏頗)행위는 채무자가 파산(또는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을 해치도록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담보 제공 등을 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ChatGPT

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므로, 수익자 스스로 “나는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수익자는 받은 재산이나 그 가액을 파산재단에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생긴다. 수익자 입장에서는 “내가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과, 내가 파산채권자로서 받아야 할 돈을 서로 상계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진 두 당사자가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상에서도 “우리 서로 빚이 있으니 그냥 없던 걸로 하자”는 방

식이 바로 상계다. 상계가 허용되면 수익자는 굳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사실상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변제받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이를 명확히 차단했다. 파산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었음을 알면서 원상회복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를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계를 허용하면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부인권 행사로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라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편 부인권의 효력은 파산재단과 상대방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양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채권양도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는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부인권 제도는 결국 파산채권자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누군가 먼저 빠져나가거나 몰래 챙기는 것을 막는 최후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법무법인 바른

소비자 일상 바꾸던 통신 경쟁의 빈자리



기자 수첩

조 민 선
(IT부)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3G)가 퇴장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 종료할 목표로 LTE·5G 가입자 전환과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신 기술의 세대 교체를 위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통신업계의 다음 화두는 인공지능(AI)과 6G다. 성장 동력으로는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기업용 AI 솔루션을 제시한다. 이동통신의 성장 정체를 기업 간 거래(B2B)로 돌파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서비스 경쟁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통신 기술 발전은 후발 사업자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기회였다. KTF(현 KT)는 2007년 3G 전국망을 먼저 구축하고 전

용 브랜드 ‘SHOW’와 영상통화를 내세웠다. SK텔레콤도 영상통화 요금을 낮추며 대응했고 이는 망 구축과 요금 변화로 이어졌다.

2009년 아이폰3GS의 국내 도입은 통신시장의 경쟁 질서까지 흔들었다. KT가 아이폰을 단독 출시하자 소비자들은 공공 장소에서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무료 접속하고 앱스토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통신사 네트워크를 비싼 값에 사용해야 했던 폐쇄적인 구조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지금은 혁신적인 변화보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와 제미니AI, 챗GPT 등 서비스를 요금제에 결합해 기존 가입자를 사수한다.

이는 단말기와 모바일 서비스의 주도권이 제조사와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통신사의 차별화 수단이 줄어들고 있다. SK텔레텍, K

TFT 등 계열사가 제조하던 단말기 브랜드 스카이, 에버 등은 인수합병 등으로 자취를 감췄고 이후 국내 단말기는 삼성전자와 애플로 좁혀졌다. 앱 다운로드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의 역할도 커졌다.

고착화된 점유율 구조도 원인이다. 알뜰폰 시장의 성장과 대규모 해킹 등 대외 변수에도 20년이 넘도록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점유율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를 추진한 것도 요금, 서비스, 망 투자 등 측면에서 경쟁 심리를 불러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024년 스테이지엑스의 5G 진입 무산은 중소 기업 자본력의 한계만 확인시켜 줄 뿐이었다.

과도한 경쟁은 시장 혼란을 낳는다. 그러나 출혈경쟁의 폐해를 막겠다고 경쟁의 순기능을 외면하면 각자의 몫을 지키려는 움직임만 남는다. 3G가 사라진 자리에 소비자의 일상을 바꿀 새로운 경쟁이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msj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4일 (음 7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혼자의 힘으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60년생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84년생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길합니다.



소

49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61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3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85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로랑어

50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이번엔 여행을 떠나세요. 62년생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4년생 좀더만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도끼

51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3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게 다가옵니다.



조

52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4년생 운의 흐름이 점점 좋아집니다. 76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뱀

53년생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습니다. 65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77년생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89년생 저녁약속을 나그넨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

54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66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78년생 기본종은 하루를 보냅니다. 90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양

5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67년생 당분간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91년생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원숭이

56년생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68년생 여행은 피하세요. 80년생 가족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92년생 급해도 신중히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닭

57년생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69년생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입니다. 81년생 동방향이 길방입니다. 93년생 오래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개

58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직장내에서 승진운이 있겠습니다. 82년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의하세요. 94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1년생 본업에 더욱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95년생 이성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오지랖과 상관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리 좋지 않다. 요즘 시대에 오지랖이 넓다는 말은 긍정적 표현이 아니다. 대개는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명리학에서 이런 성향의 사람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상관이다. 모든 상관이 오지랖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특징이 자주 나타난다. 큰 장점은 뛰어난 언변이다. 생각을 말로 풀어내는 능력이 좋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재주가 뛰어나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도 잘 찾아낸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영업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큰 장점이다. 상관의 장점은 뛰어난 말솜씨에서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특징은 주변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다.

어려운 지경에 처한 이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 애쓴다. 이런 성향은 직업으로 이어질 때 빛을 발한다. 상담가나 교사, 변호사처럼 사람을 만나고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학생을 가르치고,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 일은 상관의 장점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다. 문제는 이러한 성향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경계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요즘은 개인의 사생활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무례한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상대를 도와주려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생기고 좋은 뜻으로 시작한 행동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함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7	8
				3	7		4
7	5						
		2					8
	6		5		4		1
	5					3	
						7	3
8				7	1		
7	2						6

1			5				6	8	
5		4	7						
				1			4		
								1	3
		2				6			
3	1								
	4			2					
						6	7		1
6	5				1				4

6	9	8	8	9	1	2	2
2	1	9	6	1	2	9	8
1	8	2	2	9	8	1	6
9	2	8	1	8	6	2	9
2	1	6	1	2	9	8	9
9	8	1	9	2	8	2	1
8	6	1	8	1	9	9	2
1	9	9	2	8	2	6	8
8	2	2	9	6	1	8	1

주요대 자연계 ‘확통’ 허용… 미적분·기하 선택 첫 30%대

〈확률과 통계〉

종로학원, 본수능 35% 안팎 전망
6월 모평 34.8% 전년비 8.8%p ↓
10개대 중 9곳 자연계 확통 허용
학습 부담에 미적분·기하 이탈 가속
심화수학 학습 격차 확대 가능성
2028학년도 수학 선택과목 폐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35% 안팎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2학년도 문·이과 통합수능 도입 이후 미적분·기하 선택률이 30%대로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다.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지원자에게 확률과 통계 선택을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학습 부담이 큰 미적분·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를 택하는 수험생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치러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수능 모의평가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지난해보다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미적분·기하 선택자는 전체 수학 영역 응시자의 31.6%로 지난해 같은 시험(40.5%)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날인 4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뉴스시스

다 8.9%p(포인트) 낮아졌다. 5월에도 32.2%로 전년(41.0%)보다 8.8%p 떨어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34.8%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의 43.6%와 비교하면 8.8%p 낮다.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역시 34.8%로 지난해(41.3%)보다 6.5%p 하락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11월 본수능에서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3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종로학원은 예상했다.

통합수능 도입 이후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은 한때 전체 수험생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학년도 48.3%에서 2023학년도 51.8%, 2024학년도에는 54.9%까지 상승했다. 2026학년도 43.9%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는 35%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대로라면 불과 3년 만에 약 20%p 감소하는 셈이다.

미적분과 기하는 통상 자연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주로 선택해온 과목이다. 과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8곳이 자연계열 모집단위 지원 시 미적분이나 기하를 사실상 필수 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25·2026학년도 대입을 거치며 이 같은 지정과목이 잇따라 폐지됐다. 현재 주요 10개 대학 가운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대학은 자연계열에 지원할 때 수능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

대학들의 전형 방식 변화가 수험생의 과목 선택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자연계 수험생들이 학습량과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적분·기하 대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대입에서는 같은 자연계열 지원자 사이에서도 고교 수학 심화 과목 학습 수준의 편차가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대학들이 지원자의 수학 교과목 이수 내용과

성취도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올해 본수능에서는 미적분·기하 선택 비율이 통합수능 도입 이후 처음으로 30%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임 대표는 “자연계 지원자 가운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크게 늘어나면 과거와 비교해 수험생 간 심화수학 학습 수준의 편차도 커질 수 있다”며 “대학 입장에서 수시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가 고교에서 어떤 수학 과목을 이수했고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2028학년도 수능 개편을 앞두고 더욱 주목된다. 2027학년도에는 현행 선택과목 체제로 치러지는 마지막 수능이다. 2028학년도부터 수능 수학의 선택과목은 폐지되고 모든 수험생이 대수·미적분 I·확률과 통계를 공통으로 응시한다.

한편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파주시, 공공·AI 데이터 수요조사

내달 10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
신규 데이터 개방·정책수립 활용

파주시가 지난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공데이터 만족도 및 인공지능 친화 데이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학생과 개발자,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공개된 데이터의 이용 현황과 만족도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학습과 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는 파주시청 누리집 팝업존에서 ‘공공데이터 만족도 및 수요조사’를 선택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조사 안내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해 참여할

수도 있다.

파주시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등 공공기관이 생성·관리하는 데이터 251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주요 교차로별 교통량 패턴’ 등 33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올해 접수한 국민과 기업의 의견도 신규 데이터 개방과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장호성 파주시 AI정책관은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조사해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AI 친화형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최신 자료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사이버한국외대, 카트만두대 학술교류 확대

공동연구·교원·학생 교류 추진
교육·학술자료와 연구정보 공유
온라인 기반 한국학 협력 확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문희창)가 नेपाल 카트만두대학교와 공동연구와 교원·학생 교류를 추진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4일 교내에서 카트만두대와 교육·학술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대학은 △상호 관심 분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교육·연구를 위한 교원 교류 △교육·학술·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학습·연구를 위한 학생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카트만두대는 1991년 설립된 नेपाल의 고



(왼쪽부터)우다브 파쿠렐 카트만두대학교 인문대학장, 우측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 /사이버한국외대

등교육기관으로 인문·사회, 경영, 교육, 공학, 법학, 의학, 과학 분야의 교육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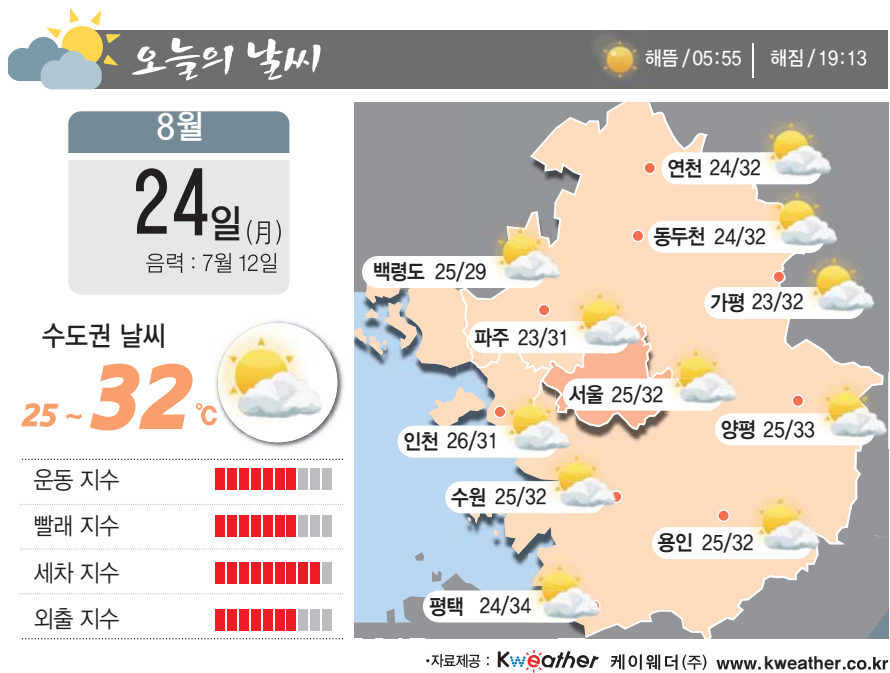
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문학부에 ‘한국학(언어·비즈니스) 학사과정’을 개설했다.

협약식에는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과 김병철 학장, 원종민 글로벌 교육원장, 윤호숙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카트만두대에서는 우다브 파쿠렐 인문학부 학장과 니비라즈 카플레 한국학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참석했다.

문희창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은 “카트만두대가 한국학 학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넓다”며 “온라인 교육 기반을 활용해 नेपाल 현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

사업기간 6년서 4년6개월로 단축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 추가 선정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해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관리와 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 공정을 관리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신속착공 공정회의’를 매달 열어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는 건축·정비·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에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한다.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추진해 관리계획을 1년 안에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

간을 약 1년6개월 단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대상 후보지를 2030년까지 100곳 선정해 추가 1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모계획은 다음 달 초 발표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조례에 공사비 검증 근거를 마련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인도양에서 싱가포르행 파나마 화물선 침몰, 인도해경 발표
▲전쟁 6개월, 이란 민생 붕괴… 일자리 100만개 증발 /사진 뉴스시스

▲푸틴 “우크라이나 경제공격, ‘판도라 상자’ 열어… 파괴적 보복”
▲캐나다 “美 철강·유제품·종이 등에 ‘달러대 달러’ 보복관세”

▲일본 이바라키현서 규모 5.9 지진… 최소 17명 부상
▲중국, 남중국해서 잇단 군사활동·실탄사격… 항행 금지



커피시장
가성비·접근성
지형 재편
L1

카스쿨 페스티벌
폭우 뚫고
2만여명 몰려
L2



전통주의 변신... “재밋는 막걸리’로 새 카테고리 엽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옥수주조
김진영 대표

청년 세대의 음주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소주와 맥주의 소비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위스키, 사케, 맥주, 막걸리 등 다른 주류의 수요는 늘고 있다. 청년 세대가 술을 취하기 위한 음료라 아닌, 맛과 향을 즐기 위한 음료로 여기고 있어서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주류를 선보이는 소규모 증류소와 양조장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김진영 ‘옥수주조’ 대표는 서울 성동구에서 가족들과 함께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운영 4년차를 맞은 옥수주조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서 마시는 막걸리’와 ‘재밋는 막걸리’를 모토로 제품을 선보인다. 대표 제품인 ‘옥주’는 2024년·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탁주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새롭게 선보인 ‘이밤에 취해’가 대상을 받았다.

김진영 대표가 좋은 제품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켰다면, 김 대표의 동생인 김서희 실장은 대표 혼자선 하기 힘든 일들을 맡으며 사업을 지원한다. 김 실장은 옥수주조가 판매하는 각종 제품, 매장 인테리어 등을 맡았고, 쌀알을 형상화한 마스코트인 ‘옥희(OKI)’도 그의 작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매출에 맞춰 상품군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재료 수급처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가족들과 4년차 막걸리 양조장 운영
수제맥주 만들던 노하우 막걸리에 접목
각종 과일·곡식 넣은 대표브랜드 ‘옥주’
3년 연속 주류대상 수상... 경쟁력 입증

◆ ‘수제맥주’로 시작... ‘젊은 막걸리’까지

김진영 대표가 양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흥미였다. 지난 2011년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수제맥주를 접했다. 귀국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양조를 시작했고, 2013년에는 양조아카데미에서 본격적인 양조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직장생활을 시작하고도 양조에 대한 흥미를 이어갔고, 직접 만든 맥주가 주변인들에게 호평을 받아 창업을 결심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수제맥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작은 매장을 열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서희 실장도 인테리어와 점포 인테리어에 참여했다. 작은 매장이었지만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지역에 거주하는 여러 연예인들도 매장을 꾸준히 찾을 정도



1 김진영 옥수주조 대표(왼쪽)와 김서희 옥수주조 실장. 2 양조를 마치고 잔에 옮긴 과일 막걸리의 모습. 왼쪽은 블러드오렌지, 오른쪽은 망고가 들어갔다. 3 옥수주조의 대표 제품인 ‘옥주’. 기본적인 쌀 막걸리부터, 각종 과일·곡물 원물을 함께 사용한 막걸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가 됐다. 당시 ‘수제 맥주’ 붐에 힘입어 매출도 성장하면서, 성동구 옥수동에 더 큰 점포를 얻었다. 해당 점포는 수제 맥주 전문점으로, 옥수주조의 막걸리를 판매하는 직판장으로도 활용한다.

막걸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수제맥주 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었다. 주류 매출은 빠르게 축소됐고, 성공 가도를 달리던 수제맥주 업체들도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했다. 김 대표는 2022년부터 막걸리 연구에 돌입했고, 2023년 초 첫 막걸리 제품을 선보이며 막걸리 양조장 ‘옥수주조’의 문을 열었다. 그는 첫 막걸리 제품이 지역 축제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가능성을 발견했고,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한 막걸리를 사업 아이템으로 확신했다.

옥수주조의 대표 브랜드 ‘옥주’는 첫 제품을 맛본 관람객들의 호에서 시작했다. 양조장이 위치한 지역명을 딴 ‘옥수주조’를 ‘옥수수가 함유된 막걸리’로 오해했고, 김 대표는 오해에서 가능성을 찾았다. 옥수수 원물을 활용한 막걸리 개발에 돌입해 수 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재료와 배합을 찾아냈다. 자신있게 선보인 첫 ‘옥주’는 2024년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각종 과일이나 곡

물을 직접 활용한 ‘옥주’는 옥수주조의 대표 브랜드가 됐다.

김 대표는 “요즘의 전통주 시장은 20~30대의 청년 양조인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젊은 양조인들은 전통주를 그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원료, 맛, 그리고 판매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며 “저 또한 막걸리가 기존 방식이나 이미지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제맥주를 만들던 경험을 막걸리에 접목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주류 주 소비층인) 청년 소비자들은 술을 훨씬 세분화해서 선택하기 시작했고, 단순히 취하기 위해 마시기보다, 맛과 향이나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이야기까지 술을 선택하는 요소가 됐다”며 “마셨을 때 맛있는 술’이란 절대적 기준은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소비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판로 확대에 주력... ‘고충’도 여럿

올해로만 4년을 앞둔 옥수주조는 주요 제품들의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상을 받으며 상품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더 많은 고객에게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각종 박람회에 끊임없이 참여했다. 전국 각지에서 팝업스

토어도 운영했다. ‘옥주’라는 브랜드를 알려가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대형마트에서도 몇몇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김서희 실장은 “옥수주조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유통 판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 재고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납품했는데, 최근에는 판매량이 늘면서 상시 납품을 시작했다”면서 “대중적인 인식을 갖춰나가는 단계 인 만큼, 고객들이 ‘막걸리’라는 카테고리에서 우리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량 생산라인을 안착시키는 데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은 성장하고 있지만 김진영 대표의 고충도 여전하다. 주류는 제품 특성상 다른 식품보다 규제 범위가 넓다. 제조면허부터 생산량, 판매 형태까지 규제가 존재한다. 특히나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여러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영세 농민이 많은 국내 농업환경 특성 상 양질의 원료를 수급하는 과정에서도 발품을 팔아야 한다.

청년 소비자 겨냥한 ‘재밋는 술’ 무기
팝업스토어 운영... 대형마트 상시납품
복잡한 규제·원료수급 등 고충 여전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막걸리 알리고 싶어

김 대표는 “전통주 사업은 술만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확장할수록 행정적으로 공부할 것도 늘어난다”며 “최근에는 전통주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예전보다 다양한 양조장과 제품들이 등장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지금보다 규제가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작은 양조장들도 훨씬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와 김서희 실장은 ‘옥주’를 하나의 주류 브랜드로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김 대표는 “편의점이나 마트, 음식점에서 자연스레 옥주를 찾아볼 수 있게 만들고 싶고, 나아가서는 해외에서도 한국 막걸리를 소개하고 싶다”면서 “해외에서 한국 술이라고 하면 아직 소주를 떠올리지만, 언젠가는 막걸리도 와인이나 사케 처럼 하나의 주류 카테고리로 인정받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사람들이 ‘요즘 막걸리가 재미있어졌다’라고 이야기 할 때, 우리 양조장과 제품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손흥민, 슈팅 9개에도 침묵, 아쉬운 포틀랜드전...평점 7 /사진 뉴시스
▲‘데뷔전 데뷔골’ 이강인, 비야레알 상대로 2경기 연속골 도전

▲김상식의 베트남, 동남아 월드컵 결승 1차전서 태국 2-0 제압
▲샌디에이고, 미네소타에 7-5로 역전승...송성문은 2경기 연속 결장

▲오타니, 투타 겸업 재개 초읽기...50일만에 타자 세워두고 투구
▲이정후, 2경기 만에 안타 생산 재개...시즌 9호 도루도 성공

삶 속으로 AI가 성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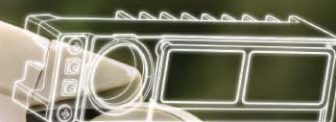
디지털에 머물던 AI를, 삶 속에서 움직이는 AI로.
LG가 사람을 위한 피지컬 AI 시대를 열어갑니다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 지능



감정을 전하는
표정 디스플레이



보고 느끼는
감각 센서



피지컬 AI의 심장
배터리



자유로운 동작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



섬세함을 구현하는
손 센서

미래, 같이

AI로 세상을 미소 짓게 하는
미래가치를 만듭니다

